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21일(음력 1월 4일) 수요일 (주간) 제 616 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설날 동심은 언제나 마음 설렌다.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운영하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이 설날을 앞둔 2월 15일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차례상 올리기 행사를 가졌다. 인덕어린이집 원아들이 독거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모습이 예쁘기만 하다. 글 · 사진=고영배 기자

규제 위주 법령 개정 추진

조계종 추진위 구성… ‘공익기능’에 무게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내외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국가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 · 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전통사찰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문화 · 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출범식에는 서울 봉은사, 화계사, 진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 및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이주 노동자 대책위 구성하자”

종단협 인권위, 여수참사 계기로 성명 발표

불교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2월 13일 조계사 교육관 3층 종단협회의실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며’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 진관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국민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앞세워 탄압에 가까운 행정만을 고집한다면 해외동포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국민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23개의 출입국관리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으~아, 음악포교 · 봉사활동 제대로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 창립 15주년 맞아 새도약 다짐



“와~우 저 김흥국이 대한불자가수회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들이댈테니 불자님들 기다리세요. 으~아.”

걱정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국가대표 불자연예인 김흥국 대한불자가수회장(49)은 요즘 고민이 많다.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의 조직이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조직부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한가수불자회는 현재 200여명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법회나 행사때 나오는 인원은 50명도 채 안됩니다. 하지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회원을 늘리는 등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소수정예로 힘차게 뛸 것입니다.” 김 회장은 우선 간부들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불자가수회의 1년 살림계획을 예년보다 빨리 세웠다. 3월 3일 청계사에서 열리는 산행법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이 첫 출발점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격월로 자연보호 캠페인과 군법당 위문공연, 독거노인돕기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친다. 개인적으로는 5월 15일 오후 7시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자선디너쇼도 연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나이 들수록 바빠요”…老보살님의 수행

“나이가 들수록 바빠요. 일 분, 일 초가 바쁘다니까요. 바쁜 줄 알면 사는 게 여유롭지요.”

올해 여든 살이 되신 무상화 보살님의 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바쁘다는 절박함과 여유로운 삶을 한데 묶어 말하는 뜻을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시간의 대화가 필요했다.

파주시 문산읍의 한 마을, 야트막한 집은 정갈했다. 무상화 보살님이 올해 아흔 세 살 되신 대원각 보살님과 단출하게 사시는 집이다. 늘 법복차림인 두 보살님은 신라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닥’ 혹은 중국의 ‘한산과 습득’을 생각하게 한다. 인천 용화사 재가선방에서 만나 도반이 된 두 보살님은 “죽는 날까지 함께 의지하며 수행하자”며 7년째 함께 ‘토굴살이’를 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침하여 예불과 독경 참선으로 하루를 연다. 오전 9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에는 어김없이 좌복에 앉아 ‘이뭣고’ 화두를 챙긴다. 무상화 보살님은 무릎관절에 대원각 보살님은 허리에 깊은 병증을 갖고 있지만 한번 앉으면 한 시간은 착실히 채운다.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말아야 다음 생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어 20년 후에는 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 한다. 또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명 중 1명이 36만 원 이하로 한 달을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라 한다.

노년의 가난과 행복, 노인복지, 노인 포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행복지수…. 이 큰 화두를 무상화 보살님은 한마디로 타파한다.

“나이 들수록 바빠요.”

임연태 기자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스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불법통지”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음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으신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짓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신간



interview

"종단 정체성 제고 역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13일 기자간담회…종무행정 시스템 개혁 ·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 밝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은 2월 13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는 태고종도들의 자긍심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종도들의 '마음 바꾸기'를 이끌어내는 등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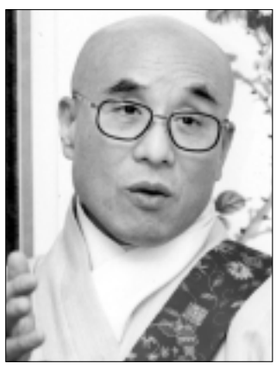
구체적인 종무기조는 '종단개혁'과 '덕화의 종무행정'. 스님은 이를 위해 "3명의 부원장 중심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하는 시스템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종단 사찰의 이미지 개선, 스님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태고종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말한 스님은 "지금처럼 조계종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태고종단의 특성을 장점화 시키고 부각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원장 중심의 조직개편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3월 임시종회의 인준을 거쳐야 실행되겠지만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무원을 사무국 형태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총무부원장(총무부 기획부 규정부) 교무부원장(교무부 교육부 사회부 문화부) 재무부원장(재무부 운영부)이 각 부서를 관장하고 부원장 밑에 실장이 역할을 하고 각 부장과 국장이 실무를 하도록 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원장 스님의 역할 변화도 불가피 하겠군요.



-종단의 미래를 위해 승려자질 향상과 사찰의 대사회적 역할 증대 등 이미지 변신이 급선무 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종도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작업에 매달릴 것입니다. 또 태고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도 역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종단에 소속된 대부분의 사찰은 개인이 창건해 평생주지를 맡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사찰에 '효행포교'를 의무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골당을 만들어 신도들의 조상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 토착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1사찰 1선행운동을 펼치도록 독려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파생되는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보는지요.

-태고종 스님들은 그간 종단간 혹은 종단 내부의 혼란기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매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위축된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종단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자긍심도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세도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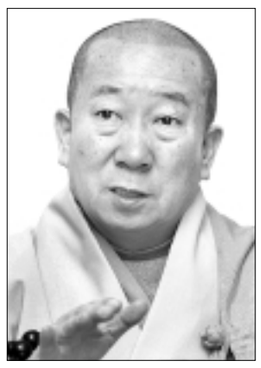
▲전통문화전승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관하고 영산재 유네스코 등록 계획도 밝히셨는데요.

-태고종 하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범패 및 불화를 비롯한 전통불교문화입니다. 전승관이 준공되면 곧바로 범패와 불화를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봉원사 영산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고 불교문화 명인을 발굴, 지정할 생각입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교육불사 원년 선포 종도 위계질서 확립의 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올 종책기조 밝혀



"올해 4월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을 개교합니다. 이를 계기로 관음종은 교육불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사진)은 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해를 교육불사 원년으로 삼겠다"며 "승려 재교육 차원에서 서울불교문화대학 졸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봉수 신규탁 교수를 지도교수로 운영되는 서울불교문화대학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가과는 2년제로, 재가자 대상의 불교과는 1년제로 운영될 예정. 관음종 종립인 만큼 법화경의 보살사상에 기반을 둔 교육이 이뤄진다.

또 스님은 "가사불사를 단행해 종도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가사의 색상과 문양 등은 종단 확대종무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장등록을 필한 뒤 공식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스님은 "관음종의 경우 60년대 황색가사를 처음으로 수했으나 지금은 여러 종단에서 입고 있어 독창적인 색깔과 문양을 채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외적인 활동과 관련해 스님은 "지난해 미얀마 기술대학에 10만달러를 지원했다"며 "올해는 미얀마 청소년 기술교육지원을 준비 중이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밖에도 4월 27일 3000명 대상의 육군훈련소 수계식을 1차로 봉행한 뒤 정례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7~8월까지 종단 홈페이지도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6월부터

4개권역서 2박 3일간 실시

불기 2551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 중앙승가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중진주지연수와 4개 권역별 연수로 구분돼 실시된다. 또 주제별 심화(분반)교육과 공통연수 주제 선정으로 연수내용이 심화됐다. 특히 권역별 연수의 경우 교육시간이 기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어났다.

승랍 30년, 세납 55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진주지연수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고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가권역(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나권역(쌍계사, 관음사, 은해사, 고운사, 직지사, 해인사)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각각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열린다.

다권역(신흥사, 월정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수덕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라권역(법주사, 마곡사, 직할, 봉선사, 용주사)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각각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봉축행사 지원사업 실시

봉축위, 선행 · 문화단체 등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자비의 손길 및 단체 봉축행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 행사 △전통 불교문화 발굴 및 재현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 예술 행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교문화 예술 행사 등을 지원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3월 9일까지 봉축기획단(02-2011-174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불교신문 경영진단위 구성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수현)는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학담(위원장), 영담, 성정 스님을 위원으로 하는 '불교신문 발행 주기와 관련한 경영진단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불교신문 노사와 운영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외부 전문가 집단에 불교신문 경영진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삼존불 점안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삼존불 점안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운산)은 2월 13일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삼존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봄은 잘해준 곳만 찾아가진 않는다"며 "부처님 가피도 봄처럼 평등하다. 허공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그 꽃비를 많이 받고 안 받고는 굳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종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불조의 혜명을 받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오늘 삼존불 점안식은 태고종의 역사를 새로 세우는 중요한 행사"라며 "오늘 삼존불 점안을 통해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원력구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대불보전 삼존불은 총 8자 높이의 청동불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에는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이 협시하고 있다. 태고종은 삼존불 주위에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3000불을 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중국서 종교자유는 시기상조"

민추본 통일종책 토론회서 차차석 교수 밝혀

"현재 중국의 종교정책을 가지고서는 종교의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니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는 중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힘들 수도 있다."

내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개방물결이 크게 일고 있는 중국이 세계 종교지도자들의 종교 개방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굳게 문을 닫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차차석 한신대 연구교수(사진)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주최로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조계종 1차 통일종책연구조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예로부터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이슬람교, 도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유교적 가치관이 정치와 사회문화를 지배했다"면서 "이는 종교가 국가위에 군림해 온 서양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접근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교수는 "중국은 국가 정체성이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개혁이후 전개된 종교정책의 흐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광불교대학 · 대학원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선정 우수교육기관 불광불교대학 -

● 불광불교대학(2년제)
불광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가한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교리와 신행학습을 통하여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1학년	근본불교 · 불교신앙과 문화 · 불교의식문 · 바라밀수행법 대승불교 · 정토와 밀교 · 바라밀신행 · 계율
2학년	불교사 · 금강경 · 비교종교론 · 포교전법 · 선불교 보현행원품 · 불교음악 · 불교사회복지

*교과과정은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부문
▶ 아침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일요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3. 입 학
▶ 지원자격 :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불교기본교육 수료자
▶ 제출서류 : 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2장(반명함판), 기본교육수료증 사본

4. 등 록 금 : 학기당 25만원

5. 특 전 : 조계종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및 불광법회 명교사 자격 품수증 수여

불광불교대학 · 불광사불교대학원
▮ 모집마감 : 2007년 2월 26일(월)까지
▮ 입 학 식 : 2007년 3월 4일(일) 오후 2시



불광사에서는 불교대학 · 대학원 교육과정 이외에도 3개월 과정의 불교기본교육, 참선수행 등 다양한 불교강의와 불교 아카데미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광사 불교대학원(2년제)
불교대학원은 실천하는 불광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불교경전 및 수행법에 대한 심화학습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교응용과정을 통하여 불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 교과과정 (2년제 4학기)
▸반야사상 | 유식사상 ▸법화사상 | 화엄사상
▸능 엄 경 | 선어록 강독 ▸정토경전 | 초기불교

2. 모집 부문
▶ 아침 반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 12시
▶ 저녁 반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3. 입 학
▶ 지원자격 : 불교대학 졸업자(불광 명교사 포함 / 조계종포교사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1장(반명함판), 불교대학졸업증 사본

4. 등 록 금 : 학기당 25만원

5. 특 전 : 불광법회 전문포교사 자격 부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불광불교대학 02)417-2551 www.bulkwangsa.org

군에 간 아들 카페서 본다

진주 공군사령부 성불사 인터넷 카페
매주 장병들 사진 올려, 댓글로 안부


지난 11일 열린 성불사 수계법회 장면.

"아들 군대 보내고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이젠 걱정 마세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오시면 열심히 군 생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법당 성불사(주지법사 상원)에 나오는 장병들의 부모들이 인터넷 카페(cafe.daum.net/sungvoolsa)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작년 8월에 문을 연 카페의 게시판에는 "어머 우리 예쁜 아들 잘 있네" "아무 걱정 말고 몸 건강히 나라 지키는 일에 충실하기를" 등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부모들의 애정 어린 리플들이 가득하다. 인터넷 카페는 매주 일요법회 때 아들 둘을 한꺼번에 공군에 입대시킨 이상용 카페 회장(50)이 성불사를 방문해 장병 60여명의 사진 140여장을 찍어 올려놓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부모들은 매주 카페에 들어와 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안부편지 형식의 리플을 달아 집안 소식을 군대 간 아들들에게 전한다.

성불사 주지 법사 상원 스님은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해준다. 매주 일요법회 때 따끈따끈한 리플 편지를 인쇄해 군 장병 불자들에게 나눠준다. 그 편지를 본 군 불자들이 답장을 하고 싶으면 성불사 내에 비치된 게시판에 적어 놓는다. 군의 특성상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사연들을 모아 이상용 회장과 카페운영자인 부모들이 1주일마다 카페 게시판에 올려 답장을 장병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상용 회장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확인하다보면 각자의 일에 더 충실해 질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까지 취할 수 있게 해 줘 큰 도움이 된다"며 "아들이 교육을 끝마치고 자대배치를 받거나 제대 한 이후에도 일부 열성 부모들은 카페활동을 하며 갓 군 입대 시킨 신입(?) 부모들의 상담 역할까지도 자처하고 있다"고 보람 있어 한다. 상원 스님도 "이제는 부모들이 주축이 돼 활발히 운영된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법당에 나오는 군 장병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박종철 천도재 올린다
3월 3일 종로 공평사거리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불교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명진 스님 · 여익구, 이하 추진위) 주최로 열리는 故 박종철 열사 천도재는 3월 3일 오후 1시 종로 조계사 앞 공평빌딩 사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조계사 길상 풍물패와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한 박은하씨의 살풀이 공연을 시작으로 불교 전통의 천도의식, 안치환씨의 노래와 야단법석의 타악공연, 사진자료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전문이사 2명 충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결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명의 복지전문가를 새로운 이사로 충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현재 7명인 복지재단 이사는 9명이 된다.

이사회는 이날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종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이사로 영입하기로 하고,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여수령 기자

사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쌍(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문화재관람료 "필요" vs "폐지"

13일 토론회서 불교계 · 시민단체 '팽팽'한 입장차 보여



2월 1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문화재관람료의 존폐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불교계가 팽팽히 대립했다.

김판동 조계종 총무원 기획팀장은 지난 13일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관람료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재관람료는 자연경관과 조화돼 존재해온 사찰의 공간적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공원입장료가 폐지됐지만 국립공원의 공간적 특수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람료를 받고 있는 67개 사찰의 문화재관리비용은 708억원, 종교적 기능을 포함한 사찰문화재 관리비용은 807억원에 이르러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보수지원액 256억원으로는 모자란다"며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수는 물론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총체적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이라고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는 것은 재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찰에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임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문화재관람료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불교계의 문화재관람료가 부당하게 징수돼왔고, 또 징수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불교계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징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



'지방' 이렇게 쓰세요

2월 18일 정해년 설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들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완) 서예동아리 회원 어르신들은 14일부터 3일간 '무료 지방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첫날 선묵회 회원인 이양구(78), 강만규(76) 어르신이 센터 1층 행사장에서 신청자들에게 지방을 써주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2월 2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7일 오후 6시 30분 불교인재개발원 교육장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농업 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사찰과 농촌의 상생 관계를 모색해 본다. 참가비 1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금강대 성낙승 총장 취임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취임식이 2월 15일 금강대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성낙승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역량 있는 인재 양성,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에 필요한 리더 양성 등 생존전략적 교육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강대 이사장 도용 스님(천태종 종정)은 치사를 통해 "금강대를 세계적 일류대학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서원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상임이사 운덕, 이사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 생태문화교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가 창립 5주년을 맞아 '어린이 생태문화교실'을 진행한다.

제 1차 어린이 생태문화탐방은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봉산의 자연과 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식물학 박사와 숲 해설가 등이 함께 하는 이번 생태문화탐방에서는 겨울 산새와 친구 되는 법, 망월사 문화유산 돌아보기, 망월사 스님과의 참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가능하다.(02)745-5813 김주일 기자



“게송 통해 당시 생활 엿볼 수 있어”

박재금 교수, 화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서



불교적 깨달음을 읊은 ‘게송(偈頌)’으로 당대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을까? 박재금 연구교수(청주대 · 사진)는 ‘그렇다’고 말한다. 불가(佛家)에서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짓고 불리어진 게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일상문화로, 게송 속에는 사찰에서의 실제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고 이를 통해 깨달음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10~11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이사장 이평래) 겨울 워크숍에 참가한 박재금 교수는 ‘고려후기 게송을 통해 본 선(禪)과 일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고려후기 게송에는 선가에 보급된 차문화와 채식 위주의 식생활, 청규의 간행으로 인한 생활의 법도 정비, 노동활동을 수용한 풍토 등이 담겨 있어 고려 전기의 귀족적 불교에 비해 더욱 현실적 삶과 밀접해진 선종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후기 게송은 현실과 밀접해진 선종 성격

일상 소재는 깨달음 숨기려는 선사들의 경지

“선사들은 게송을 통해 법리(法理)를 드러내 보이는 데 있어 일상적 삶의 공간과 사물을 주로 이용했다”고 말하는 박 교수는 나옹 혜근 스님과 혜심 스님, 충지 스님의 게송을 예로 들었다.

‘전에는 스승의 손에 있더니/이제는 제자의 손에 들어왔네’라는 혜신 스님의 게송 구절에 등장하는 부채는 번뇌 망상을 쫓는 것은 물론 전법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으며, ‘아침이면 함께 죽을 먹고/ 죽 먹고 나면 발우를 씻네’라는 충지 스님의 게송에서의 죽과 발우는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사 속에 존재하는 도리, 즉 ‘도(道)’를 뜻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울력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차 마시는 행위로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일상적 소품에 일관된 주제를 담아 거론하는 것은 선사들의 관습적 표현방식”이라고 말한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는 나옹화상의 게송과 같이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게송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일상사를 떠나지 않은 일입을 드러내 보이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범부의 일상처럼 보이는 선사들의 생활은 치열한 수행을 통해 도달한 ‘도’의 궁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소재로 읊은 게송은 결국 깨달음의 자취를 숨기며 흔적조차 드러내지 않는 선사들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게송을 통해 일상생활과 도를 합치시킴으로써 일상적 삶의 의의를 새롭게 인식시킨 점은, 선가의 범주를 넘어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교문학을 통해 그 시대를 읽어보려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2월 10~11일 구례 화엄사에서 한국불교학회 겨울 워크숍이 ‘한국의 문화, 불교에 녹다’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의 문화, 불교에 녹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이미향 조계종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이 ‘사원에서 만나는 법의 소리와 음악 상징들’을, 유마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이 ‘한국의 불화’를, 불교전문번역가 진우기씨가 ‘불교와 영화-길위의 인생’을, 유근자 동국대 박사가 ‘간다라 불전도와 불교도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학회지 <한국불교학> 47집은 2월 말 경 발간될 예정이다.

구례=여수령 기자

이슈

■ 조계종 멸빈자 사면 수면위로?

오는 3월 개원될 제173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까?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도연 · 법철 스님의 대사면에 의한 재심사 요청의 건’과 ‘원두 · 종원 · 혜은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계류’ 결정을 내렸다.

1994년 종단 개혁불사 당시 종정 사서실장이었던 원두, 불국사 주지였던 종원, 시대불교신문 발행인이었던 혜은 등은 “3차례 등원 통보만으로 본인의 진술이나 호법부로부터 죄상에 대한 문책, 자백도 없이 궐석징계됐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규위는 두 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신청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종단 화합을 위해 중앙종회와 집행부, 호계원 등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천제 스님은 “멸빈자 사면 문제는 종정 스님의 교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스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3월 임시종회 때 총무원장스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법규위, 합의 도출 필요 ‘계류’ 결정
종전 법전 ·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긍정적
중앙종회 동의 필요… “3월 거론은 미지수”

이와 관련 종정 법전 스님은 지난해 교시를 통해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 조치를 강구하라”며 사면을 언급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94년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단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과거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 3차례에 걸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멸빈자 사면 문제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단 한 관계자는 “94년과 98년은 문제의 성격이 다르고, 3월 임시종회는 결산종회일 뿐 아니라 ‘종무원법’ ‘중앙종회의 원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 문제가 대두돼 있어 멸빈자 사면 문제가 거론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불사도 하고 한지도 살리고

전주 참좋은 우리절, 한지공예 체험전 열어

전주시 삼천동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고려시대의 감지금니기법을 활용한 104위 신중탱화 조성을 완료하고 3월 18일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 또 ‘사찰탱화와 전주한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지 체험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지전시회에는 불화(佛畵)로 장식된 한지수의와 연등, 가사, 장삼, 승복, 인형, 축원카드, 찻상, 좌복 등이 전시되고, 한지연등 소품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공예 체험전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내에서 화장식 장례문화 정착과 한지수의 보급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참좋은우리절 회일 스님이 탱화 점안식을 계기로 ‘전통 한지 산업 육성에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전주시 한브랜드과의 협력하여 개최하게 된 것.

한편 2000년 4월 창건된 참좋은우리절이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주목받는 사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수행, 전법교육, 봉사회향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매월 2회의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통한 심신수행과 불교 문화대학 운영 등을 통한 신도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주지 회일 스님은 “사찰의 모든 역량을 기도수행과 교육전법에 집중하여 봉사회향하는 신도를 육성함으로써 참좋은우리절이 척박한 전북지역 불교 활성화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옥천 대성사 · 혜오자원봉사대 의료봉사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매월 2 · 4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혜오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법석)와 함께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과치료와 법률상담, 수지침 · 발마사지 무료봉사를 실시한다(사진).

혜오자원봉사연합회는 혜오대체의학연구학회, 한밭동양의학연구학회, 한국건강증진협회 대전 · 충청지회, 세계건강활법협회, 한국음악치료연구학회 등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모임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다. 혜철 스님은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에서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043)732-5560

여수령 기자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불교 장례문화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원혜영씨(연세대)가 ‘초기불교의 장례-붓다의 열반에 관해서’를, 송위지 교수(서울보건대)가 ‘한국의 장례문화’를, 김시덕 학예연구사(국립민속박물관)가 ‘일본의 장례문화’를 각각 발표하고 송현동 교수(건양대)가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제시한다.

한편 25일에는 신임 회장에 선출된 본각 스님의 취임식도 열린다.

여수령 기자

北에 내복 보내기 운동 펼쳐



대구 정토회(대표 전병덕)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겨울 내복 1만 벌 보내기 원력을 세우고 성금과 물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모금은 2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된다. 회원들은 매일 저녁 9시 정토법당에서 발원문 낭독과 300배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주말이면 동성로 등 시내 일원에서 기금 및 물품 모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 정토회는 100일 발원 기도가 끝나면 내복 1만 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월 초순에는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아시아 중심 박물관으로 도약

국립중앙박물관 ‘비전 2020’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2020년까지 ‘아시아 중심 박물관’으로 거듭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14일 장기발전계획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자국 문화재 중심의 전시에서 탈피해 일본 ·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와 문화재를 소개하는 ‘아시아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비전 2020’은 ‘진흥의 장’ ‘창조의 장’ ‘열린마당’ ‘교류의 장’ 등 4가지 추진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문별로 총 3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해 한국 박물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 선포 및 법요식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로 하여 임제종(臨齊宗)의 개조(開祖)이신 임제 의현(義玄)선사(禪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선교를 수지 선양합니다.
우리나라 선종은 대개 임제종풍이었으나 태고 나옹선사 이후 부터는 확실히 임제종의 선풍을 이어 받았고,
이를 더욱 선양하고자 종단운영에 필요한 종헌, 종법을 마련하고 중생교화의 지침이 될 터전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할 것입니다. 삼가 세계불교 임제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니, 함께 할 종도대중은 따르시기 바랍니다.

창종법요식

◆ **일시 :** 불기 2551(2007)년
양력 3월 18일(음,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총본산 송원사 (경남 김해시 외동 699-5)
◆ **전화 :** 055)338-4008 / 011-868-2850

종도 사암모집

세계불교임제종 창종과 더불어,
함께 할 종도여러분을모십니다.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될 본종단의 일원으로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불교 임제종 종정 대행겸 총무원장 **법광 석혜공**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외동 699-5번지 문의전화 055)338-4008 / 011-868-2850

“버스 자주 다니고…절집 덕 많이 보고 삽니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② 도솔산 선운사


선운사 경내.


삼인리 석상마을 입구.


도솔암 마애불


선운사 오르는 길은 사하촌 주민들이 농산물을 파는 생계현장이다. 원내는 삼인리 이종길 이장님.

시절 인연에 맞추어 조화롭게 변해가는 도솔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는 선운사는 조계종 24교구 본사로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 진흥왕이 왕위를 버린 첫날밤에 진흥굴에서 잠을 잤는데 꿈에 미륵 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기이하다 여긴 진흥왕은 중애사를 창건하였는데 이것이 선운사 불사의 시초라고 한다. 한때는 승려 3천여 명을 거느린 대찰이었다. 금동 보살 좌상, 도솔암의 지장보살 좌상, 참당암 대웅전 등 보물이 있어 학생들의 수학여행 지로도 유명하였다.

선운사 주변의 동백 나무숲은 노랫말로 불리어져 봄철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되었다. 매년 4월이면 붉고 탐스러운 동백꽃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산골 마을은 만원이란다. 500년 된 동백 나무숲은 선운사의 자랑거리로 관광자원이 되었지만, 처음 동백나무를 심게 된 배경은 다른데 있다고 한다. 식량이 부족하여 스님들이 탁발을 다니며 시주를 구하던 시절, 동백기름은 사찰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동백기름으로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물물교환 수단으로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다.

도솔산 자락은 여름철 다시 한 번 빨간빛으로 물이 든다. 초입부터 도솔암까지 상사화 군락 지가 형성되어 9월까지 감상할 수가 있다. 상사화는 모습만큼이나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다. 옛날 한 여인이 선운사에 불공드리러 왔다가 스님에게 연모의 정을 느껴 그만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단다.

500여년 된 동백 선운사의 자랑 기름 짜 절 살림에 보태려고 심어 절 · 삼인리 주민 식구처럼 교류 생태계 숲 개발사업 주민 ‘걱정’

그 후 여인의 무덤가에서 못다 이룬 사랑처럼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상사화다.

석상마을에서 상사화처럼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 여고 시절 선운사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어느 스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했다. 불가의 사람과 사랑에 빠진 고명딸을 아버지는 혹독한 매질을 해대며 말리셨단다. 그러나 인연의 끈은 아무도 자를 수 없는 것인지라, 그녀는 스님의 아들 셋을 낳고 혼자서 길렀다. 애절함으로 보낸 젊은 날을 회상하며 낯선 나그네 앞에서도 눈물 바람을 했다. 한 때 비구니로 살며 청화 스님께 계를 받았다는 그녀는 이제 다시 홀로 되어 삼인리 절집 아랫마을에서 깊은 도량처럼 살고 있다.

6대째 도솔산 자락 삼인리에서 살고 있는 이종길 이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어릴 적 절집에서 놀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 뒤로 산자락에 갇혀있는 마을에서 유일한 놀이터는 도시 사람들이 드나드는 절집이었지요. 배를 주리고 살던 시절이라 배 고플 때 공양 시간에 찾아가서 밥을 참 많이 얻어먹었구만요. 자연스럽게 절집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았지요. 산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다가도 저녁 예불 시간을 알리는 범종 소리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소풍도 선운사로 가곤했는데, 뒤뜰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며 우리 집 뜰에서 숨바꼭질하듯 했었지요. 사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을 달아주고 누룽지를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일은 절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버리는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우는 재미로 절집마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절 아랫동네 마을이라서 그런지 승려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사촌형님도 스님이 되었고 친구도 승려가 되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합디다.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옛날에는 버스가 동구밖까지 하루에 세 차례 운행되었어요. 삼인리 사람들 절집 덕 많이 보고 삽니다. 관광객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버스가 흥덕, 고창, 해리에서 자주 들어와요."

마을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절집에서 돈을 조금씩 내어 놓기도 한다는 이장님 말에 절집과 사하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인연의 고리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절에서 음악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도시 문화를 보급하기도 한다.

이장님은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선운사 지역을 생태계 숲으로 개발하려고 군에서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공시 지가로 땅을 판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개발해서 분양하는 상가에 들어가기에는 주민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을 개량해서 펜션이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온 마을 36호 집집마다 수저 수까지 세고 있는 이장님은 마을을 지킴이다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선운사로 통하는 길목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녹차 가루, 솔잎 가루, 은행, 호박 씨 등 주변에서 수확한 먹을거리로 좌판을 벌이고 있었다. 절집 아랫마을이 고향이라는 김영례 아주머니가 짧은 겨울 햇살을 탓하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큰스님이 동네 아이들을 밤마다 절집으로 불러들여 한글도 가르쳐 주고 예절도 엄하게 가르쳐 주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털어 놓았다.

동네 소녀들은 봄이면 뒷산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산나물을 뜯어다 절집에다 팔아 용돈을 얻어 쓰기도 했단다. 옛날에는 스님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셔서 친분이 도타웠는데 지금은 얼굴 익히기가 무섭게 떠나 버린다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탓했다.

도솔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붙잡으려 도솔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솔암 낙조대에 올라서서 일몰을 감상하려는 생각은 욕심이었다. 서해로 빠져버린 해를 마애불의 얼굴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도솔천 입구에서 본 삼인리 송악과 마애불의 얼굴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안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내려다 보는 마애불을 보면서 내 어리석음이 지워지는 듯하였고, 은어가 산다는 도솔천 물에 발을 담그고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송악은 법구경같은 가르침을 내게 주었다.

선운사= 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녹차처럼 푸른 꿈 일구는 **유룡** 스님

녹차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것

선운사 석상암쪽으로 오르는 길은 녹차 향으로 가득하다. 구부러진 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녹차 밭이 야트막한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단정하게 머리를 자른 녹차 나무만큼이나 반듯해 보이는 유룡 스님은 선운사에서 생활을 하다 나와서 차밭을 가꾸고 있다. 묵정밭을 선운사에서 임대해 차밭을 이루었다.

산자락에 야생 녹차나무 2만평 재배 녹차나무 6만평 정도를 가꾸고 있는데 차밭을 이루느라 빚도 많이 졌다고 한다. 정토 세계에서 수행을 쌓는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차밭을 가꾸는데 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도솔산을 생태계 숲으로 개발하려는 고창군의 생각을 스님이 혜안으로 미리 읽은 것 아닌가 싶다. 생태계 숲에는 체험 학습장이 필요한데 녹차 밭을 체험 공간으로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녹차를 수확해서 얻어진 수익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짓궂은 질문에 좋은 일에도 사용하고 노후에 용돈이나 해불요량이라고 했다. 땅을 20년 동안 사용하고 그 후에는 녹차나무까지 선운사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단다.

녹차나무는 해풍을 맞고 자라야 차 맛이 좋은데 서해 바다에서 넘어오는 해풍이 도솔산 자락으로 깃들어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 일찍 심은 나무에서 수확한 차는 선운사에도 주고 아는 스님들한테도 보낸다고 했다. 녹차는 4월에 돋는 새순부터 따기 시작한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일손을 사는 일이 많은데 이제는 모두 노인들만 살고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차밭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위해 퇴비를 만들 요량으로 이랑 사이에 호밀을 심어 놓았다는 스님은 녹차 나무를 자식만큼이나 사랑하는 가보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에 찾아오라며 향이 진한 녹차 한잔을 권했다.



www.njutcm.edu.cn

UN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월 28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석사과정 합격자-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국무총리 초청 뮤지컬 관람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2월 14일 한명숙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승가원장애아동시설 28명과 함께 뮤지컬 점프를 관람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지현 스님은 2월 14일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사랑의 좀도리 쌀 나누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환송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2월 15일과 17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을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현지실사단 환영식 및 환송회를 개최했다.



무료급식사업 개소

양양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2월 12일 양양군 복지회관에서 이진호 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산사 복지재단 무료급식사업 개소식을 했다.



새터민 지원 토론회

영통포럼 대표 무원 스님(천태종 사회부장)은 2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교육감 '민선' 재선임

부산시교육감 설동근씨가 2월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열린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초대 민선 부산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새해 발원 1천배 정진법회

부산불교교육원 박동범 원장은 2월 14일 교육원 법당에서 동문 및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발원을 세우는 1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영어강좌 운영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3월 31일부터 진행하는 제5기 '알기 쉬운 불교영어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02)722-2206



한무숙문학상 수상

불자 소설가 구효서씨가 2월 16일 서울 예장동 문학의집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소설집 <시계가 걸렸던 자리>로 제12회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전 불교신문은 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91번지 목은관 2, 4층으로 이전했다. (02)733-1604

개소 김형남 변호사(前 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2-10 명광빌딩 4층에 P&P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02)535-9994

"사찰 출토유물 소유권은 당연히 불교계에…"

총무원장 공로패 받은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



"지금까지 소송의 실무를 도맡아준 봉선사 혜문 스님께 이 공을 돌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찰 출토 유물의 소유권이 불교계에 있다는 판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내 출토 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이끌어 온 회암사 주지 연흠 스님(사진)이 2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고려 때 창건된 회암사는 폐사된 채 방치되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사찰이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왕실사찰다운 위용을 드러내며 지금껏 20여 만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하지만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두고 2005년부터 국가와 회암사 간에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해 2월과 12월 1·2심에서 법원은 회암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상고를 한 상태고 최종 판결은 올해 연말 경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흠 스님은 "이번 소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아직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결과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좀 더 일찍 발굴 유물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스님은 "늦었지만 이번 회암사지 건을 통해 사찰 내 출토 유물의 소유권은 물론, 폐사지 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암사의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는 지난 1월 30일 종무회의를 통해 '회암사지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복원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고, 경기도와 양주시는 출토 유물을 보관할 유물전시관 기공식을 3월 6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종정 혜공 부종정 혜승 총무원장 진봉 스님 삼론종 충주서 추대법회



혜공 스님



혜승 스님



진봉 스님

대한불교 삼론종은 2월 12일 충주 후렌드리호텔에서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당 혜공 스님을 제 3세 종정으로 추대하고,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부종정에 혜승 스님, 총무원장에 진봉 스님이 임명됐다.

3세 종정에 추대된 혜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각 사암의 무분별한 승려의식 재정비를 통해 종단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종단 교육기관을 혁신함은 물론 삼론종 교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도 쉽게 이용 '한글법요집' 발간

법현 스님, 3월 3일 출판기념회



"한글로 된 대부분의 의식집이 운율에 맞지 않고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독송하기 쉽게 운율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불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양, 천도, 예불, 독송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한글법요집>을 출간한 법현 스님(열린선원 선원장 · 사진).

3월 3일 오후 3시 서울 갈현동 열린선원 대불전(큰법당)에서 <한글법요집> 출판기념회를 갖는 법현 스님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불자들이 의식을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스님이나 법사가 이끌어도 좋도록 편집했다"고 밝혔다.

'저자거리포교원'을 표방하며,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가꿔가고 있는 법현 스님은 선원이 위치하고 있는 역촌중앙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짬짬이 법요집을 꺼내 독송할 수 있도록 직접 읽기 좋게 편집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1부 출판기념회에 이어 2부 '왜 불교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를 열 계획이다. 열린선원은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에게 <한글법요집>을 1권씩 나눠줄 계획이다. (02) 386-4755

김원우 기자

군불교 발전 위한 신년 간담 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병관)와 군불교후원회는 2월 14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군불교 발전을 위한 신년 간담 법회'를 봉행했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군불총 총신도회 김병관 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군불교를 사랑하는 사부대중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독거노인 복지지원센터 현판식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2월 13일 '광진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지원센터는 독거노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관장 화평 스님과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우재영 부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현스님 초청 '호스피스 이해' 특강



불교호스피스교육원(원장 정법)은 지현 스님 초청 특강을 2월 10일 대구불교회관에서 개최했다. '호스피스 이해와 불교호스피스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와 마하야나불교대학 대구불교방송 후원으로 열렸다. 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053) 629-8867

태국 무에타이 사원과 자매결연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2월 7일 태국 전통무예인 무애타이 전승 사원인 왓탐파아차퉁 사원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결연식은 1시간 가량 펼쳐진 선무도 · 무에타이를 시연과 상호교류 조인식 등으로 진행됐다. 적운 스님은 "불교 무예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한불교원종 갱생보호단 위문



대한불교 원종 나눔의 손(대표 원종)은 2월 8일 갱생보호단 대구지부를 방문해 위문 행사를 열었다. 나눔의 손은 1993년부터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 활동을 해온 봉사단체다. 이날 행사에서 나눔의 손은 향후 갱생보호단과 연계해 빨래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봉 행

道庵 性道 大宗師 2주기 추모재

도암 성도 대종사 큰스님께서 열반 하신지 2주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명당수에 나투신 영록한 사리가 큰스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합니다. 2주기를 맞이하여 전 문도스님들은 물론 전 종도스님들과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의 위덕을 다시한번 새겨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도암 대종사 문도스님들께서는 전원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1(2007)년 3월 5일(음, 1월 16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 흥도사 대웅전 02)2234-2198
◆문 의 : 문도회 총무 055)532-4414 011-507-2837

도암 대종사 문도회 회장 법호 서호 합장

대한불교 대승종 임원공고

종 정 법청천광
원 로 원 장 법상심곡
중앙종의회의장 법호서호

총 무 원 장 법천 청화
감 찰 원 장 법서 청원
고 시 원 장 법성 정산
교 육 원 장 법진 도일

총 무 부 장 정관
복 지 부 장 덕운
의 전 국 장 원도

서울교구종무원장 혜심
경기교구종무원장 법신
충청남북교구종무원장 혜능
전북교구종무원장 법현
군산교구종무원장 덕일

전남교구종무원장 진덕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암
부산교구종무원장 청운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일봉

대한불교 대승종

■ 총무원 : 부산시 남구 우암1동 174-32 ☎ 051)638-4088

“아는 만큼 보여요”

“돌 하나 까지도 성스러운 보물”
얽힌 일화·유물 가치 친절한 설명
교육·수행 일거양득, 정례화 예정

송광사 ‘성보 바로 알기 템플스테이’

2002년 처음 시작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더욱 전문·세분화되어가는 가운데, 2월 10~11일 순천 송광사에서는 ‘성보 바로알기’를 주제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그간 사찰이 템플스테이의 ‘무대’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엿한 ‘주인공’의 자리를 얻은 것이다.

템플스테이 둘째 날인 2월 11일. 참가자들이 따뜻한 떡국으로 빈속을 채우고 일주문 앞에 모였다. 어제 입제식 후 가진 스님과의 대화 시간에 송광사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16국사를 배출한 ‘승보(僧寶) 사찰’이라는 것도 알았고, 선원과 강원·율원을 갖춘 총림(叢林)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이제 사찰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송광사의 매력에 빠져볼 차례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다리인 능허교에 이르자 안내를 맡은 일웅 스님이 다리 밑을 가리킨다.

“저기 다리 밑에 엽전 세 닢이 걸린 것이 보이시죠? 능허교와 우화각을 지을 때 보시 받은 돈이 남아 저곳에 걸어 놓은 것입니다. 시줏돈을 허투로 쓰지 말라는 말 없는 가르침이지요.”

우화각에 걸린 편액과 현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보전 앞에 다다랐다. 또 다시 스님의 질문이 이어진다. “다른 절과 달리 송광사에 없는 것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탑과 풍경이다.

“송광사는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의 형상이라 석조로 만든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달지 않은 것은 승보사찰로서 스님들이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 끄떡. 1902년 고종황제의 왕실기도처로 건립된 관음전에서는 처마 밑에 숨은 그림처럼 써 넣은 ‘수(水)’자와 ‘해(海)’자를 찾아보며 ‘화기(火氣)’를 다스리려 했던 선조들의 노력도 느껴본다.

대웅보전을 참배한 뒤 참가자들은 성보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사찰 외관과 건물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송광사에 전해지는 문화재들을 알아볼 차례. 12년째 송광사 성보박물관을 맡고 있는 관장 고경 스님이 직접 ‘문화유산해설사’로 나섰다.

“1997년 개관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 3점과 보물 110점, 지역문화재 38점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상이나 탑 같이 화려한 문화재보다는 문서나 탱화 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유물들은 지난 800여 년 동안 숱한 화재나 전란에도 불구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한두 사람의 성의나 역사적인 우연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하는 성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면면히 이어져온 덕분이지요.”

고경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송광사 스님들은 성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놓아 전란을 피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잠시 혼란했던 틈에 불쏘시개로 쓰이던 편액이나 책상 덮개로 쓰이던 목판 등을 찾아내 무사히 전해지게 한 일화도 소개했다.

박물관에는 고려 고종이 진각국사에게 ‘대선사’호를 내려준 문서인 ‘고려고종제서’나 <거란본대장경>을 강화 선운사에서 송광사로 이운할 때 옮겨온 대장경 분류표지 패인 ‘경패’,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릴 때 사용하던 용기인 ‘능견난사’ 등 국보와 보물들이 가득하다.

차근차근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도장 하나 문서 하나에 얽힌 일화와 역사를 옛날이야기처럼 차근차근 들려주는 고경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미 참가자들은 수백 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다. 보조국사 스님이 신었던 신발과, 대중들을 위해 밥을 저장했던 목조용기인 ‘비사리 구시’ 앞에 서자 참가자들의 상상력이 더욱 커진다.

“신발 크기로 보건데, 보조국사 스님은 키가 150cm 정도 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이 통에 쌀 일곱 가마로 지은 밥이 들어간데.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옛 유물을 통해 수백 년 전 송광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참가자들. 이제 그들에게 성보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나 국보·보물 등으로 이름 지어진 좁은 의미의 ‘문화재’가 아니다. 송광사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 무심히 놓인 돌멩이 하나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 이어지게 하고자 한 노력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로 다가온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이경희(25)씨는 “평소 절에 가면 눈으로만 스윽 훑어보고 나오기만 해 아쉬웠는데, 경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설명을 듣고 나니 성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참가했다는 권수자타(20) 한수진(20)양은 “설명을 들을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뜻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연아(30)씨 또한 “그저 ‘문화재’라고만 여겼던 사찰의 여러 유물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전하는 ‘성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송광사 김승년 포교과장은 “성보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성보 바로알기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성보 바로알기 템플스테이’는 2월 24~25일에도 진행된다.(061)755-0107

순천 송광사/글=여수령 · 사진=박재완 기자



사찰 안내를 맡은 일웅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일주문을 살펴보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난다. 오른쪽 맨 위 사진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얽힌 일화를 하나한 친절히 소개해주는 모습.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ISO 9001 특허 HQC-2115호 전국생산성본부 | 수력자원개발원 |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용구제조업 허가번호 제1099호 | 전기제품 실용신안등록 특허청 | LIG 넥스원 LG회사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KETI 전력기기시험연구원 | 전자파장애시험 EMI 접수 전력기기시험연구원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숙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장부의 혈맥에 온열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겨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맥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심·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을 원활히 순환시켜 겨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치유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혈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겨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혈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7> 출가하여 스님이 된다는 것

46장부터 이 앞장까지는 도를 닦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는 보시, 인욕, 정진, 주력, 예배, 염불 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이 장부터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들이 참으로 덧없어 헛된 것임을 계속 깨우쳐 주면서 출가한 사람으로서 본분사(本分事)를 돌아보게 한다. 이 세상의 온갖 욕망과 향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하여 무소유(無所有) 정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도를 닦는다는 것은 참으로 갸륵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선가귀감> 57장에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일에 대하여 말한다.

出家爲僧 豈細事乎.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非求利名也 爲免生死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也

출가하여 스님 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편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고 살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요, 시비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 성불하려는 것이요, 삼계(三界)를 벗어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로 번역한 '불혜명(佛慧命)'에서, '혜명(慧命)'은 지혜로 생명을 삼는다는 뜻이다. 색신(色身)인 중생의 몸은 음식에 의지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몸은 지혜에 의지해야 그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기르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 없다.

부처님 지혜를 이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면 삼계를 벗어나야 한다. '삼계(三界)'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셋으로 나눈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말한다.

'욕계'는 음욕(淫欲)이나 식욕(食欲)과 같은 세속의 욕망을 품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이다.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세계를 비롯하여 하늘나라 맨 밑에 있는 육욕천(六欲天)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색계'는 음욕과 식욕을 벗어나 맑고 깨끗한 모습만 가지고 사는 중생들의 세계이다. 욕계 위에 있고 그 세상은 밝고 아름다운 느낌의 행복만 가득하므로 색계라고 한다. 이 곳은 천인(天人)들이 머물며 빛으로 음식을 삼거나 언어로 쓰기도 한다. 선정의 깊고 얕음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누어 사선천(四禪天)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네 등급을 다시 열여덟 등급으로 나누어 색계십팔천(色界十八天)이라고도 한다.

'무색계'는 욕망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오직 수(受)·상(想)·행(行)·식(識) 네 마음만 남아 있는 세상이다. 이 세계는 심식(心識)이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장애를 벗어나 오직 오묘하고 깊은 선정에 있을 뿐이므로 무색계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미세한 망상은 남아 있다. 이 세계는 색계 위에 있고 공무변처(空無邊處), 식무변처(識無邊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색계(四無色界)라고도 한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삼계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위치에서 보면 모두 어리석은 중생계에 속한다. 삼계는 중생들이 고통받고 사는 생사윤회의 끝없는 굴레이므로 출가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벗어나야 한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도 "삼계는 편안하지 않다. 마치 불타는 집에 온갖 고통이 차 있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두려워해야 한다(三界無安 猶如火宅 衆苦充滿 甚可怖畏)"라고 하였으며, 또 화성유품에서 "삼계의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能於三界獄 勉出諸衆生)"라고 말하고 있다. 출가한 사람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어서 빨리 성불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출가인의 삶은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
생사 벗어나 성불하여 중생 제도하려는 것

주(周 557-580) 나라 수도에 있던 대중흥사(大中興寺) 도안(道安 ?-600) 스님은 <유계구장(遺誡九章)>에서 출가한 스님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다.

"무릇 출가하여 도를 닦는 길은 지극히 소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니 스스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스스로 쉽게 여겨서도 안 된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도덕적이며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세속을 떠나 부모의 사랑을 뒤로 하고 중생의 알음알이를 없애야하므로 그 성품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하고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끊어내며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생명조차 내버려야 하니 이를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도인이라 하니 도인이란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 행위는 반드시 뒤따를 만해야 하고 그 언행은 반드시 본받을 만해야 한다. 법복을 입고 출가함에 움직이면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본받을만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 탐욕이나 다툼이 없어야 하고 중상모략이나 간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문은 높고 고결해야 하며 품은 뜻은 깊은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명성과 칭찬이 되어야 존경받는 삼보의 자리에 들어간다. 현명하다는 단계를 벗어나 성인의 경계로 들어가니 '나'라는 생각이 깨끗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부모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온 천하 사람들이 그의 품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내나 부모의 몫을 줄여 옷과 음식을 공양하고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해주는 것은, 그 뜻과 행위가 맑고 깨끗하며 신명(神明)에 통하여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하니 기이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夫出家爲道 至重至難 不可自輕 不可自易. 所謂重者 荷道佩德 縈仁負義 奉持淨戒 死而有已. 所謂難者 絶世離俗 永割親愛 廻情易性 不同於衆. 行人所不能行 割人所不能割 忍苦受辱 捐棄軀命 謂之難者 名曰道人 道人者 導人也. 行必可履 言必可法 被服出家 動爲法則 不貪不諍 不讒不慝 學問高遠 志在玄默 是爲名稱 參位三尊 出賢入聖 滌除精魂. 故得君主 不望其報 父母 不望其力 普天之人 莫不歸攝 捐妻減養 供奉衣食 屈身俯仰 不辭服勞恨者 以其志行淸潔 通於神明 恢泊虛白 可奇可貴)"

이 장에서는 출가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가인의 삶은 편하고 한가롭게 살면서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시비 분별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번뇌를 끊고 괴로운 생사를 벗어나 성불(成佛)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출가인의 모습은 어떠할까? 서산 스님은 말한다.

可謂衝天大丈夫

기개가 하늘을 찌를만한 대장부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전강

1월 21일 하동 쌍계사에서는 조실 고산 스님이 "후배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며 중강 월호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했다. 전강법회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호를 내려 준다.

제자들에게 강맥(講脈)을 전수하는 전통불교의식인 전강법회에서 전강제자는 스승 강맥을 전수받음으로써 앞으로 전통강원 강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인받는다. 부처님의 전법안장을 부촉하는 법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전강이란 무엇인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의미한다. 강학(講學) 전등(傳燈)의 뜻을 가진 전강은 부처님과 스승으로부터 학적 토대를 물려받는 의식이다.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전한 전강에서 시작되는 전법의 한 유형이다. 전등법계보(傳燈法系譜)에 의하면 부처님께 직접 법을 전달받은 마하가섭을 제1조로 시작해 인도에서 제27조 반야다라까지 이어지고 제28조는 중국으로 건너간 달마가 잇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57조 태고보우 국사가 법을 이어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전강을 할 수 있는 스님은 대략 20여 분 남짓이라 한다.

전강식 관련 문헌은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은 없다. 다만 진행되는 전강법회의 형식을 살펴보면 후학들에게 강의할 능력을 인정받은 제자에게 대중이 3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법호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전강제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통해 공인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6>

ID(Intellectual Design; 지적 설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지적설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학과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다윈에 근거한 진화론 대신에 혹은 같은 비중으로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주장하면서 더욱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즉, 생물이 가지고 있는 오묘하기 짝이 없는 DNA의 복제, 그리고 단백질 분자의 상호관련,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기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 크게는 인간이 보여주는 학문적, 예술적인 재능을 진화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묘하다는 것이다.

창조론은 끝없는 의문에 대해 애매한 대답 뿐
부처님 가르침, 쓸모없는 논쟁의 현명한 대안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이라는 법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형질이 자연에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들만이 계속 생존하고 변형,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의 논점은 우주상수에 대한 것이다. 물리학의 마지막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의 탄생에 대한 설명에서 물리학자들은 몇 가지 상수를 도입한다.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점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하는데, 이 작은 점이 가지고 있는 질량사이에 중력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작은 점으로 존재할 수 없으면서 대 폭발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폭발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몇 개의 상수를 도입했는데, 이 상수가 몇 억분의 일만큼만 다른 값을 가지더라도 우주의 탄생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의 창조론이 공격을 받는 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항상 틀려왔다는 점이다. 즉 지구가 돌지 않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던 점, 그리고 창세기가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가 몇 천 년이라고 하는 점 등이 공격을 받는다. 둘째 더욱 큰 약점은 그 조물주가 왜 하필이면 히브리 문화가 만들어낸 유대인의 신인가라는 점이다. 세계 각 민족은 각각 세계의 탄생에 대한 각자의 신을 만들어 냈는데도 말이다.

셋째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 존재하는가, 왜 수억 년을 기다려서 인간을 만들어 냈는가, 조물주는 누가 만들었나 등 전통적인 끝없는 의문에 대해서 그저 애매한 대답이 있을 뿐이다. 창조론에 근거한 사람들의 마지막 답은 믿으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쓸모없는 논쟁 중의 하나로 조물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꼽고 계신다. 이 가르침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중단하고 인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실용주의 노선인지, 아니면 집착하는 중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주의 존재론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야 말로 현대가 겪고 있는 쓸모없는 논쟁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의:02)961-0871
매주 수요일(사주명리학). 목요일(기문명리학) 오후7시~9시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문의:031)201-3377
매주 화요일(사주명리학) 오전반(10시~12시) 오후반(13시~15시)
개강일시 2007년 3월부터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전통학문인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2)3476-3433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의 15여 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 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우 체 국〉
703975-02-094201
예금주:윤정현
콜센터:1588-1000
대구지산동우체국 053)782-2314

〈농 협〉
176277-56-097900
예금주:윤정현
콜센터:1544-2100
대구축산동농협지산동지점 053)783-9901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달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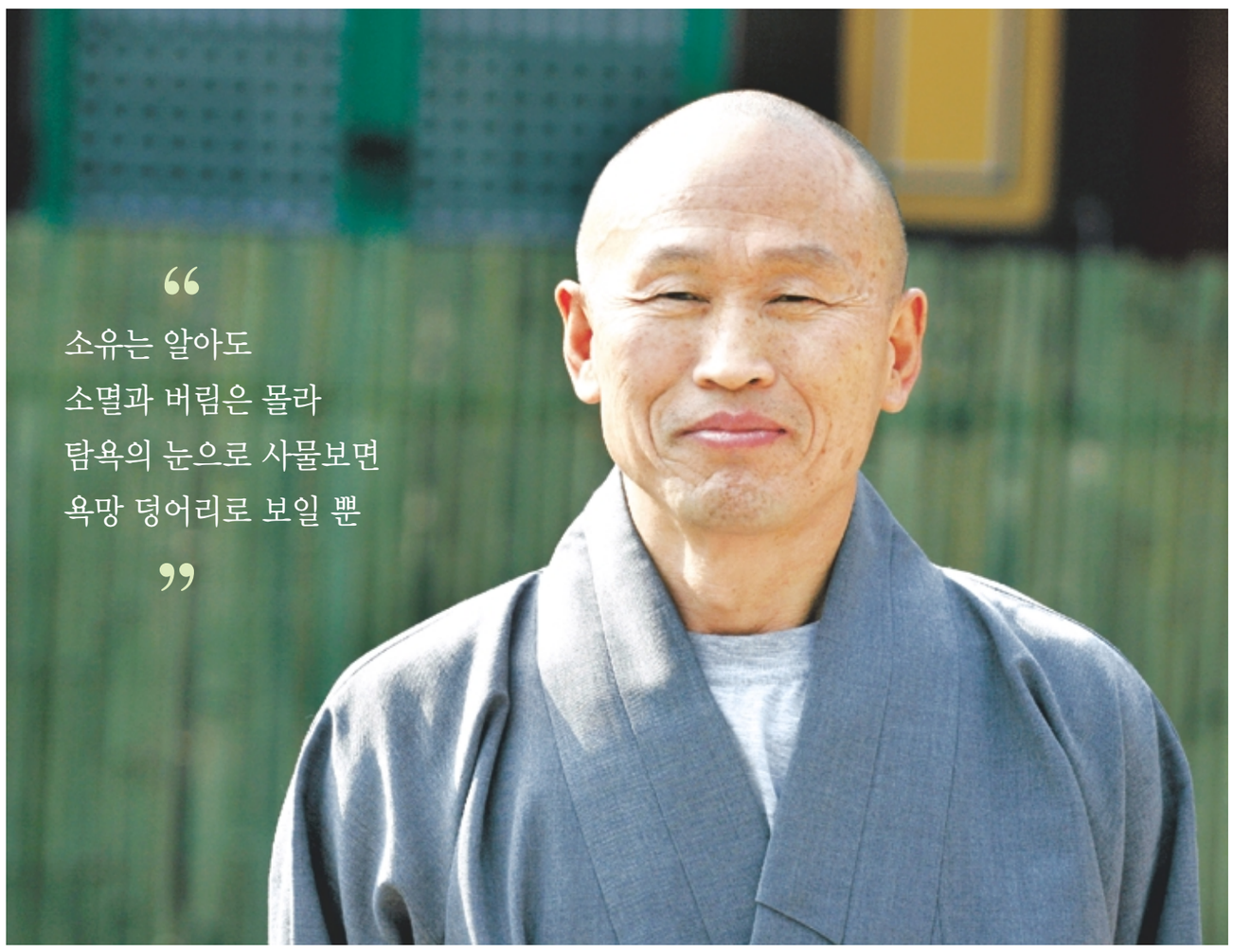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지금 이 곳이 극락이어야”



인보 스님 (보현사 주지)

인보 스님은 18세에 상원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스님으로 해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20세에 영은사에서 3년 동안 수학하였고 송광사 구산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홍천 수타사에서 12년간, 횡성 보광사, 강릉 용현사에서 주지를 역임하였다. 2002년부터 강릉 보현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인보

‘보현성지’라는 팻말을 따라 길을 걸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 수십 기의 부도탑들을 만났다. 오랜 세월의 풍상을 말해주듯 부도탑에는 검푸른 이끼가 돋아나 있었다. 옷깃을 여미고 부도탑 앞에서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렸다.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는 금강문을 지나 보현사 대웅전 앞에 설 수 있었다.

인보스님은 며칠 전 ‘2014년 동계올림픽 기원 법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걸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스님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저승꽃이 피고 몸도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이지요” 하면서 뭣하러 이 먼 곳까지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을 찾아 왔느냐고 타박하신다.

스님은 동진 출가하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선방에 앉을 수가 없었단다. 출가의 뜻과는 다르게 가람을 수호한다는 이름 아래 머슴살이만 하다가 공부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다면서 스님의 지나 온 세월을 말씀해 주신다. 하지만 스님의 처소에는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판한 한글대장경이 책장을 빼곡히 채우고 있으니 수행자의 치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행자생활 할 때 탄허스님이 <금강경> 강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들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금강경>은 대승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기초 공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째는 무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별로 영원할 게 없고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처세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상한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변화에 대한 충격이 크지요. 영원하지 않고 견고한 것은 없다는데서 발심해서 닦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법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렵고 찾으면 찾을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생활 그 자체가 곧 부처님 법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탐욕도 무상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눈으로 물질을 보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탐심이 있기에 물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스님께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었다.

“옛사람들은 심불반조(心佛返照) 간경무익(看經無益)이라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전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에 투영된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지 결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을 동양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하지요. 한 생각이 꺼지면 나도 없고 우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도 있고 우주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소식만 알 뿐, 꺼지는 소식은 모릅니다. 한 생각이 72찰나이고 한 찰나에 900생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파장을 셀 수 있겠어요? 마음은 형상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알음알이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 “해치는 행위 대신 봉사와 희생으로 되돌리는 것이 부처님 항해기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진대 우리는 생성과 소유는 알고 있지만 소멸과 버림은 모르는 것이다.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면 사물도 무심하게 보일진대, 탐욕의 눈으로 보면 사물은 이미 사물이 아니라 소유해야 하는 그 무엇 욕망의 덩어리로 보이는 것이다.

스님 처소의 방문을 열어 제치면 한 폭의 그림처럼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산이 우뚝 솟아 있다. 우뚝 솟은 산이 거침없이 방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다. 스님은 새벽마다 방 앞의 커다란 바위에 앉아 참선을 하신다. 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일출을 맞이하는 스님의 청복을 감히 탐낼 수 있으랴.

“상근기는 사자와 같고 하근기는 개와 같다고 하지요.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 가지만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사자처럼 말의 뿌리를 찾아나서야 하는데, 사람들은 헛것을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중생들은 있다고 말하면 있는 것에 집착해버리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에 집착해버리는 것이 문제지요. 말은 말일 뿐인데, 말을 떠나서 본체를 봐야 하는데 그것에 끄달려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니 언제 주인 노릇합니까? 객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주인은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아는 것이지요.”

눈만 뜨면 상업적인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주인의식을 상실해 버린 지가 오래지 않나 싶다. 음료수 한 병, 과자 하나를 사도 내 의지대로 산다기보다는 기억 속에 주입된 광고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런 사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진정한 의미까지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 채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어떻게 하면 주인노릇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신이 지옥에 있는지 극락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극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인노릇 잘 하는 것이지요. 지금 금생에 극락을 가야지, 죽어서 극락 간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경전에는 극락세계가 10만억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하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몇 광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 극락이란 곳은 악업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악업이 없어질 때가 극락이요, 10만억국토를 지나 있다는 것은 한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닦아서 빛과 같이 밝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구의(身口意)로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란 살생 도둑질 음란이고, 입으로 짓는 죄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탐진치 입니다. 이렇게 짓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10만억이 되는 것이지요. 10악업이 쌓이고 쌓여서 10만억 국토가 되어서 극락으로 가는 길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열 가지 악업을 돌이키면 10선업이 됩니다. 저 언덕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바다가 가로 막혀있습니다. 오욕의 바다, 탐욕의 바다인데, 바다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모두 빠져 죽는 것이지요. 반야용선을 타야 저 언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라 버렸다. 매트릭스의 세계가 따로 없다. 마음과 행위가 바로 매트릭스의 세상을 지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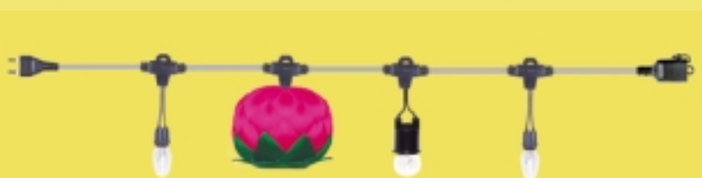
“고해바다에서 살아나려면 항해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항해기술이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살생을 방생으로 돌이키고 남을 해치는 행위 대신에 남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되돌리는 것이 항해기술이지요.”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린다. 며칠 전에 내린 눈이 포근한 날씨 탓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이다. 그동안 지은 악업이 녹아내릴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항해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스님의 귀한 법문을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산길은 마침 석양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듯 빛났다.

강릉=문윤정(수필가 · 본지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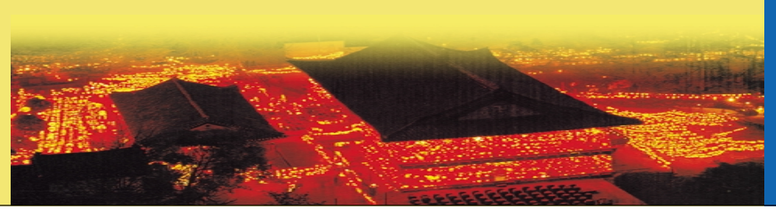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3)

묻되, 술이나 파전 먹고 싶으면?
답하되,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먹죠
말하되, 나 같으면 밀 · 파 농사 짓겠다

경허 선사가 청양(靑陽) 장곡사(長谷寺)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선사가 곡차를 잘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사람들이 곡차와 파전을 비롯한 여러 안주를 들고 왔다. 이것을 맛있게 먹다가 만공에게 물었다.

"너는 술이나 파전이 먹고 싶은데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만공이 대답했다.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굳이 먹으려 하지 않지만, 생기면 또 굳이 먹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사가 대견한 듯이 보는 척 하다가 말했다.

"그래? 참으로 너의 도력(道力)이 대단하다. 근데 나는 말이다. 너 만큼 도력이 없어서 술이나 파전을 먹고 싶으면 참을성이 없어서 말이다. 밭을 정성스럽게 갈고 좋은 거름을 주고는 좋은 밀씨와 파씨와 깨씨를 구해다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알뜰히 키워서 밀로 누룩을 만들고 깨로 기름을 짜고 밀가루와 파를 버무려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술과 함께 맛있게 먹겠네."



'평상심이 도' 한 차원 높여
분별심 없는 깨친 삶 강조

그 말을 들은 만공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훗날 여러 선사들은 이 문답이 경허 선사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향상일구(向上一句: 끝없이 초월하는 깨달음의 한 마디)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다.

이 문답은 목마르면 물마시고, 졸리면 자는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경지를 한 차원 높게 드러내고 있다. 본래 평상심은 아무 생각 없이 되는대로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절대 아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飢來喫飯 困來卽眠)"는 말은 같지만, 범부의 일상사와는 다르다. 어째서 같지 않을까. 이에 대해 대주혜해 선사는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마음으로 밥을 먹지 않고 온갖 딴 것을 찾아 헤매며, 잠 잘 때는 천 가지 잡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같지 않은 것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다. 영흥 스님(진천 불뢰굴)은 평상심이란 "다시 딴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각 없는 평상심이란 혼침이다"고 풀이했다.

평상심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의 분별심을 버리고 무심(無心)이 되어 깨어있는 진지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매순간 대상과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평상심'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틱낫한(임제종 41대) 스님의 '정념(正念, mindfulness)' 수행이 좋은 예가 된다. 이 '정념'은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온전히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와 같지만, 지금 여기서 일과 대상과 철저히 하나 되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스님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설거지만 해야 한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신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삶에서 깨어나기>중에서)고 말하고 있다.

설거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도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된다면 경허 스님처럼 늘 깨어있으면서도 일없이 한가로운 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안으로 닦고 밖으로 전해요"

居士禪의 리더들 ① 월담 이동호(전주내과의원 원장)



선종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유마경>을 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물론 여러 보살들이 유마 거사(維摩居士)와 문답하면서 쩔쩔 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인도의 유마 거사 이후 중국에는 방(龐) 거사, 한국에는 부설(浮雪) 거사가 3대 거사로서 불법을 드날렸다. 이후에도 고려의 청평(淸平) 이자현(李資玄), 조선의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 거사가 높은 안목을 드러냈으며, 현대에도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를 비롯한 여러 거사들이 재가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유마 거사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을 이어받아 생활선을 선양하는 거사들을 만나 재가 선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생이 아프므로 나도 아프다'는 대승의 메시지를 남긴 유마 거사의 발원처럼 실제로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불법을 전하는 이가 있다. 전주 이동호내과의원 원장 겸 대한태극권협회 회장으로서 국민의 심신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월담(月潭) 이동호(李東豪 · 69) 거사가 그 주인공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위치한 내과의원 원장실에서 만난 월담 거사는 오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선기(禪機)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 진료실과 태극권 수련실, 병원 내에 설립한 한국동양학연구원을 월담 거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차례차례 둘러 보던중 12개 국어로 된 대장경과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학 관련 5만권의 장서를 갖춘 연구원의 규모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국민생활체육전국무술연합회 회장, 인상학원 · 인상무술고등학교 이사장, 원각정사 선원장, 등 10여개의 직함을 가진 월담 거사는 바쁜 단체 업무를 병행하며 진료 시간 틈틈이 인터뷰를 하는데도, 대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졌다. 내방한 손님을 맞이하고 전화받고, 회의하고, 진료하는 그 바쁜 시간들이 무심(無心)으로 이어지면서도 활발발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다"는 월담 거사의 말을 듣고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일없이 한가한(無事閑) 도인'을 눈앞에서 목격한 셈이다.

19살 때, 아름다운 동네 누나를 짝사랑하면서 그 열병으로 도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월담 거사. 그가 서양철학,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다 한계를 느끼고 비로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전남대 의대본과 1학년에 재학당시 광주 동광사에서 현공(玄空) 윤주일(尹柱逸 · 1895~1969) 법사를 만나면서 부터였다. 한용운, 백용성 스님의 감화를 받고 수행해 온 노 법사의 탁월한 법문을 듣게 되면서 월담 거사는 비로소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란 수행의 3요소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태극권 가운데 검술시범 장면.

두 차례 화두 타파로 '이무애' '사무애' 경지
윤주일 법사 사사…行禪 태극권 보급 앞장

이때 월담 거사는 화두 의심이 독로(獨露)되어 자나 깨나 화두(화두는 공개하지 않음)가 들리는 경지에 이르렀다.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화두 의정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깊은 마음이 화두 의심이라면, 옅은 마음은 시험을 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화두가 잡혔을 때는 등 · 하교 길에 이마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길을 걷다 전봇대나 장애물에 부딪히곤 했기 때문이다.

1958년 8월 어느 날, 선정삼매 중에 홀연히 화두가 풀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무엇이든 보고 들으면 곧 이해되었다. 삼라만상이 그와 부합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제방의 선지식을 참방하기 시작했다. 전강 구산 고암 혜안 청담 서옹 성철 월산 송담 청화 묵담 일타 · 법전 스님 등 당대의 선사들을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63년에는 순천불교선우회를, 이듬해는 남원불교선우회를 창립했으며, 67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단체 지도교수회를 창립 · 발기했다. 75년에는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를 시도하기도 했다.

월담 거사는 39세 때, 간경삼매 중에 다시 한 번 돈오체험을 하게 된다. 어떤 불자가 병원으로 <보조어록>을 가져 왔는데, 책을 읽던 중 '성재하처(性在何處)오? 성재작용(性在作用)이니라' 하는 대목에서 눈이 번쩍 뛰었다. '성품은 어느 곳에 있는가? 그 작용에 있다'는 뜻의 이 문구를 읽는 순간 머릿속의 의심과 번뇌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동안 은연중에 본체가 현실 밖, 일상생활 밖의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문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었다. 어떤 할 일이 생각나더라도 마음이 달려가지 않았다.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걸림이 없어졌다.

그러나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 했던가. 이 체험 후 하루 건너씩 곧 죽을 환자들이 병원에 들이닥치는 등 엄청난 마장이 들이닥쳤다. 경계가 크게 닥쳐오자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한 감정의 흐름이 일었다. 그때서야 그는 보임(保任)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옛 선지식들이 돈오한 후 20~30년 동안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보임했던 데는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58년에 화두가 타파되며 법안(法眼)이 열린 것이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이무애(理無碍)'에 해당된다면, 78년의 개오(開悟)는 사무애(事無碍)에 해당된다는 게 월담 거사의 견해다. 즉 육조 스님이 깨달은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의 도리에 계합되어, 일체의 사물에 걸림없이 자연스럽게 응하게 되는 경지이다. 보임을 통해 사무애를 닦아 대도사가 되는 과정에 숙명통을 비롯한 신통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부처님과 같은 일체지(一切智)가 증득된다는 것이다.

월담 거사는 1990년대부터 워킹 메디테이션(Walking Meditation 行禪)이라 불리는 태극권 보급에 나서, 생활체육계에서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가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느긋하고 고요하게 하고 잡념이 사라지게 하며, 성품을 부드럽고 포용력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서 보급에 나선 것이다. 준비된 수행자와 지도자가 부재한 오늘날, 그는 불교 밖으로 '법의 그물(法網)'을 던지며 혼신을 다해 전법에 나서고 있다. (063)287-6932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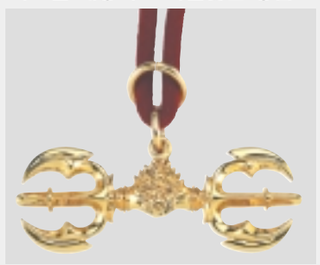
수행게시판

12연기와 위빠사나 수행
한국위빠사나선원은 3월 6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 오후 2-5시 '12연기 법문과 위빠사나 수행반'을 모집한다. 동참금 15만원, (02)512-5258

정기 철야참선
구미 금오산 인적사는 매월 첫째 주 다라니 주간, 둘째 주 <금강경> 주간, 셋째 주 참회주간으로 정진한다, (054)431-1192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③ 시동생의 잘못을 마음으로 안아주다

사업하다 전재산 날린 시동생과 '의절'

도반들 "다음생에도 그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마음 여니 온 집안이 편안해져

시동생과 의를 끊고…

A씨는 결혼 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남모르게 항상 가슴 속에 응어리 같은 아픔과 원망이 있었다. 하나뿐인 시동생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의절을 했기 때문이다. 그 긴 세월을 안 보고 살아 온 것이었다. 이유는 시동생이 집안에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원래 A씨의 시댁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A씨가 시집오고 1년도 지나기 전에 그 많던 재산을 완전히 날리게 되었다. 바로 시동생이 사업한다고 몰래 전 재산을 투자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것이다.

그 때부터 A씨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집까지 차압이 들어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지내며 갖은 일을 다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갔다.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고생했어요. 더군다나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좋아하던 친정 식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더 컸어요." 온 식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다 보니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시동생을 원망하고 외면하게 되었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시동생을 불러 놓고 "너 때문이니 앞으로 너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 않겠다"라고 하였다. 부모님과 A씨도 묵묵히 동의한 것이었다. 그 후 시동생은 집에 발길을 끊었고, 제사 때도 오지 않았으나 식구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며 A씨는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인과응보, 인연, 모든 것은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업에 따라 받게 된다는 말씀이 가장 가슴에 다가왔다. 결국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말씀이 가슴을 치는 듯 아팠다. 그래도 시동생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도반들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의를 끊은 채 죽으면 이게 업이 되겠지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반들은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해 주었다. 무엇보다 시동생을 용서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다. "전생에는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요." "그건 불효 중의 불효예요. 조상님들이 어떻겠어요? 제사에도 못 오게 하고." "아니,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그렇게 지내려고 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선 용서하라고요. 그런 악연은 녹이고 벗어나야지."

과연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시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김씨는 문득 시동생의 입장이 되어 보았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들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아프게 느껴졌다. 그 전에는 본인이 힘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시동생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것이었다. 이제 보니 시동생은 사업이 망한데다가 집안에 죄를 지었다는 고통스런 마음으로 살면서, 수십 년간 받을 벌을 다 받았을 것 같았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려왔다.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A씨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시동생 내외를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다. 정성들여 저녁공양을 마련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그 동안 힘드셨죠. 오늘부터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앞으론 서로 돕고 잘 지내기로 해요"하고 말하였다. 시동생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부모님과 온 식구도 같이 울었다. 이 이야기를 하며 A씨는 또 울고 있었다.

내가 아닌 부처님 마음으로

A씨는 '네 탓'이라는 중생의 마음에서 '우리의 탓'이라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했습니다. 또 시동생을 '나의 마음'이 아닌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A씨의 마음이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부산 환희불교복지대 호스피스 과정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이 호스피스 교육 및 카운슬링 과정을 개강한다. 카운슬링 교육은 3월 12일, 호스피스 교육은 13일 개강이다.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051)203-9436

대성사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성법회
서울 대성사는 2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12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성법회'를 봉행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통해 인생을 참되게 살자는 발원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법회다. (02)583-1475

여여선원 화엄신중기도
부산 범어사 포교원인 여여선원이 2월 20일~3월 5일 정초 화엄신중기도를 봉행한다. 20일 오전 10시에 입재해 5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한편 2월 27일 오전 7시에는 남해 보리암으로 정초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853-5486

화엄사 우리 밀 밟기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가 2월 23~25일 '우리 밀 밟기 여행' 가족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구례 우리 밀밭에서 다양한 밀 밟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새 학기,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061)782-7600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정초 산림기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2월 20일~3월 12일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일 년 내내 가정의 평안과 부처님 도량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이다. 21일에는 설판기도도 봉행할 계획이다. (054)474-8228

조계사 영가천도 방생법회
서울 조계사가 3월 5일 '불기2551년 동안거회향 영가천도 방생법회'를 떠난다. 오전 6시 30분 출발하는 이날 방생법회는 고운사에서 진행된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함께하는 조류 방생이라 조계사의 방생법회는 독특함을 자랑한다. (02)732-2187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하)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갑작스러운 변화의 소용돌이는 매우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 빌고 또 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감이 남긴 집을 팔아 빚 정리를 하고 나니, 제 몸에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다니고 화가 치밀어 손 발가락을 바늘로 쿡쿡 찔러 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미치광이의 형상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았고 집은 온통 먼지가 쌓여 발 디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옆에 있어도 빨래에서 곰팡이가 필 정도로 쌓아 놓고, 음식쓰레기에는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등 완전히 정신을 잃은채 심한 우울증으로 만 5년을 보냈습니다.


그림: 문병성

우울증 속 '죽음' 생각하며 5년 지내
제주도 여행 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죽는 일만 상상하고 15층 옥상에 올라가 떨어질까 궁리를 했고 9층인 우리집 베란다에서 매일 문을 열고 아래만을 보는 그런 생활이 전부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님 제사 3일전에 그간의 우울증을 이기고 우뚝 서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활력이 생겨나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동생이 "언니, 빨리 오세요. 바람도 쏘이고 아버지 제사를 나와 함께 지내 봅시다"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그 말에 짐을 싸고 나들이 준비를 해 외출을 했습니다.

창 바깥으로 비추이는 세상이 새삼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 환생한 듯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 동생과 같이 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스님을 모시고 함께 염불독경을 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 온 시간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세 번의 기적을 얻게 된 삶의 등불은 그 누가 밝혀 준 것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부처님 전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했던 덕이고, 무주상 보시로 살아오신 어머님의 선업에 따른 선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무주상 보시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아들도 건강하게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있고, 결손가정의 슬픔을 거뜬히 이겨낸 손주 남매도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큰 손녀는 학교에서 선발하는 인재 두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 지금 필리핀에서 연수중입니다. 얼마 전 "잠깐 귀국해 할머니 뵈러 가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손녀 만날 기쁨에 신이 났습니다. 장손은 사병으로 복무하며 100일 휴가를 받아 나왔습니다. 늠름한 대한의 국군으로 변모한 손자를 가슴에 포옹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는 큰 딸의 힘이 컸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고 가며 물심양면으로 어미를 위해 희생하던 효녀였죠. 막내딸은 14년 전 프랑스 유학을 떠나 그곳 파리 소르본느 대학 학부를 마치고 파리에 눌러앉았습니다. 자신의 프랑스 생활 등을 한국에서 책으로 펴내면서 한 잡지에 생생한 프랑스 소식을 전하는 전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식들도 다 잘 풀려 나가는 것이 모두 어머니의 공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불심, 자비심에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부처님을 염원하면서 제 생활에 바른 지표를 던져보려고 노력합니다.

독실한 불자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며 평생을 사셨던 어머님의 얼을 닮자고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면 성실 효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실천하면 너희들 자신은 이 험난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외된 곳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펴자고 얘기하곤 하죠.

나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바른 불심을 담는다면 인생행로 긴 여정은 광명과 행복이 자신을 갖게 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걷는 자만이 갈 수 있다'를 가훈으로 삼고 실천하기를 외쳐봅니다.

"어머니, 제겐 부처님이신 어머니, 감사하며 오늘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로 힘차게 걷고 또 걸으면서 마음 깊이 불심을 담겠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세안을 깨끗이 하고 예불을 올립니다. 어머니,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세로 자식에게 열심히 사는 엄마였다는 평을 받고 손자에겐 매력과 지혜가 있는 할머니로, 이웃에는 정으로 나눌 수 있는 덕을 쌓겠습니다. 오늘도 큰스님의 법어를 낭송하면서 마음을 다져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듯이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끝)

불교명상지도자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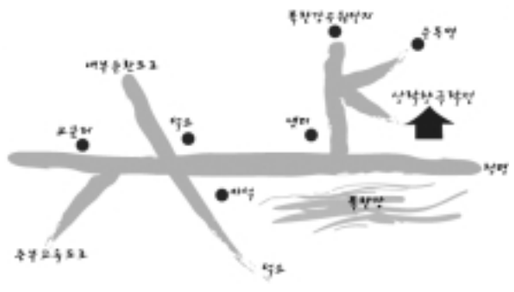

보현 김옥자 박사
(세계불교 명상센터 원장)

(1)가정과 직장에서 중생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2)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여 생사고뇌에서 해탈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3)신체허약 · 정신 빈곤 · 가정불화 등으로 고민, 신심건강을 희망하시는 분

① 일반과정 : 건강 · 두뇌개발 · 단주 · 금연 · 비만크리닉 – 제 1차 3개월
② 전문과정 : 견성성불로 생사해탈을 목적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③ 지도자과정(선착순 20명 모집) :
명상센터를 개원,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 제 1차 3개월

◆ 일시 : 2007년 3월 24일(토) 오후 3시 개원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철야정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 : 자유선택)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 185 상락향수도원
☎031)584-0657, 010-8700-3619, 011-447-1122(원장)




뎀브렐스님
(몽골 다시쵸링)



세계불교명상센터 교통안내
▣ 기차 : 경춘선(청량리역 출발) , 대성리역 하차, 서북 2km
▣ 버스 : 청량리역 앞 출발, 1330번(청평행) 765번(대성리행), 1115번(잠실-대성리) 대성리 민박촌 앞 하차
▣ 택시 : 마석 1만원, 청평 1만 2천원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부설
세 계 불 교 명 상 센 타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현장



아이는 엄마에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 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는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속으로 울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 행복"

2월 11일 일요일. 쉬 나른해지는 오후 3시, 서울 대치3동문화센터 강당에 청소년과 학부모 30여명이 속속 모여든다. 본지가 마련한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들어서는 아이들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예비 고3이다 보니 초조한 기색이다. 반면 아이들의 부모는 기대 반 근심 반인 눈치다. 부모들은 이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모님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아이에게 설명해주세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 가벼운 준비 대화를 지시하면서 이날 강의가 시작됐다. 승구 엄마 윤초순(서울 삼성동 · 46)씨는 일 때문에 바빠 아들과 대화하지 못한 것이 늘 맘에 걸렸다.

"너를 억지로 데려오긴 했지만 엄마의 어떤 점이 승구를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어."

이 때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모두 자신만의 '잣대'를 버리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을 허물고 순조로운 대화를 향해 달려가는 첫걸음이다.

"자, 이제 앞으로 나와서 두 무리로 나눠 원을 만드세요. 오른쪽, 왼쪽 옆 사람을 잘 확인하고요. 다음에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갑작스레 '액션'이 필요해지자 아이들과 부모 모두 당황한다. 더듬더듬 스님의 지시대로 원을 만들고 자리도 이동한다. 자리이동 후에는 왼쪽에 있던 사람의 왼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의 오른손을 찾아 잡는다. 이리저리 꼬여있는 손을 풀어 다시 처음의 원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한 군데 틀려 제대로 임무 완수가 되지 않으면 누가 엉터리로 손을 잡았는지, 'X맨'이 드러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놀이. 생각 외로 재밌다.

자신만의 '잣대' 버릴 것 강조
인연 고리 만들며 공감대 형성
껴안고 호흡느끼며 마음 나눠
"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어 행복"



아이들의 굳은 얼굴도 슬슬 풀려간다.

그 때 스님의 다음 지령이 떨어진다.

"원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 앉으세요. 같이 온 부모님이나 아이가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가족 자랑을 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 하지만 이날만큼은 상관없다.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멋있는 우리가족이 아닌가. "엄마는요, 요리를 잘 하시고요 항상 몸에 좋은 것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는요, 건강하고 친구도 많아요. 자기 일도 잘 해내고요."

칭찬이 줄을 잇고,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괜히 흐뭇하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온다.

마음이 서로 통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때. 서로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를 느껴본지 참 오래됐다. 마가 스님이 효과적으로 서로를 껴안는 방법을 제시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서로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생각은 하지마세요.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만져줍니다."

마무리는 간단한 걷기 명상과 스님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하는 '당부'다.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공부 · 이성교제 · 운동 등 구체적인 사항들 중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 위에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세입니다. 아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상태, 그 자체를 고마워하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욕심이나 못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을 풀고 평온해져야 아이도 평상심을 찾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이영란(43)씨와 딸 설이(부흥고 3)의 손을 잡은 백규현(안양시 부흥동 · 47)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아이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 직접 체험이 많아 더 좋았습니다."

이날 남달리 눈물이 많았던 딸 설이도 수줍게 소감을 밝힌다.

"엄마아빠에 대한 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랑, 따뜻하게 안겼던 거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 마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 · 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 · 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터뷰 놀이, 동화 읽고 지점토로 표현하기, 벽 신문꾸미기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즐거운 도서관 체험' 행사를 연다. 장애체험과 e-북 체험도 마련된다.(02)736-891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멕시코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살펴보는 '멕시코 문화 여행'(27일) △영화 및 음악 프로그램(매주 토)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우리의 세시풍속' 전(25일까지) △영국 일러스트레이션전 '매직 펜슬'(4월2일까지)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02)3451-080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연화아동상담센터에서는
놀이치료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아동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 심리학 등 관련 학과 졸업생이나 대학원 재학생 대상.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oksoocwc.or.kr)에서 다운로드.
서류 접수 2월 23일까지. (02)2282-1108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는
생명이 움트는 3월 '사랑의 꽃씨 나누어 주기'를 시작으로 종이접기, 토피어리, 꽃누르미 체험교실을 연다. 특히, 3월부터 난치병 불우 어린이환우돕기 음악공연을 후원하여 조성된 기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051)809-0251

재단법인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작은배움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학습증진, 소양개발, 진로교육, 현장체험 등 교육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재단법인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opportunity.or.kr)에서.
2월 26일까지. (02)727-5400~6

'제63회 코믹월드 서울'이
2월23일~25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아마추어 만화가와 만화가 지망생들이 작품을 소개하고 교류하며 만화를 스스로 창작 및 판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02)3142-2137~8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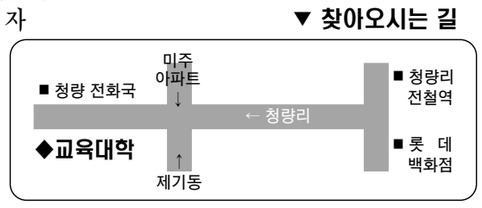
2007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7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2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 木)
▶ 접수일자 : 2007年 2月 12日 ~ 3月 5日
▶ 입 학 일 : 2007年 3月 7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명상교육 밝은 미래를 위한 佛事

6. 희망찬 미래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坐禪 〈끝〉



부산동래여고생들이 좌선하는 모습.

보고 듣고 맛본 것이 다른 우리는 몸의 기억과 마음의 무늬 또한 제각각이다. 사람들은 그 기억과 무늬로 생각을 하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나중에는 그만의 자세와 습관으로 굳어진다. 걱정과 갈등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난 분별과 고정관념에서 생긴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쉬고 또 쉬어진 마음, 고뇌와 갈등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사는 삶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상을 통해 내면을 관찰하며 쉼도 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제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복 받아야 한다.

명상은 정해진 방법이나 별스런 수단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좌법(坐法)으로 인간 본래의 모습인 순수성을 회복시키고 검소한 생활태도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감으로써 내적 평화를 달성하는 심신수련이다.

첨단산업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세상은 나날이 변해가고 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사람-컴퓨터-사물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 내몰아 가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명상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연한 코발트빛 물결이 하얗게 부서지는 고운 모래밭에서 오직 더 멋진 모래성을 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자태를 반듯이 하고 날숨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주변의 냄새와 소리를 느껴보라는 말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늘 푸른 우리의 미래를 본다.

>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구도 속에서
> 몸 · 마음 바르게 하고 좌선(坐禪)하면
> 심성 순화 올바른 인생관 심는데 도움

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여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살맛나는 세상은 경제나 과학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공감이 우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구조는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과 거친 경쟁구조 속으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다.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

처음에는 간간이 졸거나,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학생도 간혹 있었지만 날숨과 삼지법, 실상관법, 만다라명상, 선기공과 참 품세 등으로 자세를 갖추고 호흡을 내리면 곧 고요한 연못 위에 반듯반듯 떠 있는 연꽃처럼 무심삼매에 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명상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 변화가 가능함을 발견한다. 무심의 바탕 위에 지식과 기술을 보태면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엄청나지 않겠는가? 우곡선원의 '마음동산 꾸미기' 명상교육은 밝고 희망찬 인간불사(人間佛事)의 나침반이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살다보면 도저히 피할 수 없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태풍이나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그저 스스로 이겨내어야 한다. 평소에 뿌리를 최대한 깊게 내리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돌발적 위기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바닷가의 아름드리나무도 소금기 가득 머금고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해풍을 굳세게 견뎌내었기에 한 여름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사람이나 매미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지 않는가? 솔 향 그윽한 바닷가 모래밭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자기 마음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잘 가꾸어 나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발원한 적이 있었다.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마음동산 꾸미기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김혜경 선생님(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장)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공부 잘하려는 마음에 답답해요

너무나 우울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혼자서 독서실에 가면 우울하고 외로워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공부가 하기 힘들어요. 또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면 꼭 알아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느라 오히려 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D:yororiya)

A: 고등학생들은 공부할 분량도 많고,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고 집중이 되지 않아 불안해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려니 우울하고 외롭다고요?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1. 우선 공부하기 전, 명상 음악을 듣거나 이완체조를 하세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또한 공부를 하기 전에 '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자신에게 맞는 시간계획표를 세워 보세요. 우선은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 한 주에 해야 할 분량을 적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할 분량을 나누어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3. 예습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습을 하고 수업에 임하면 수업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수업내용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4. 공부할 때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목표를 이야기하고 목표 달성의 어려움,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지요.
5. 공부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계획, 주의력, 공부 방법, 기억력, 시험계획 및 시험관리 능력 등 자신의 방법과 태도, 효율성을 검토해 보세요. 또한 주위에 자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자신의 스타일과 비교해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마음 상담연구소)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연등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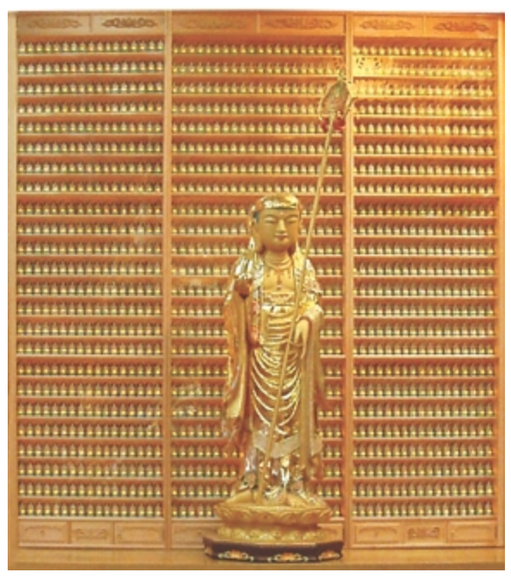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空을 말하지 않고 空을 설명하다

'상묵 스님의 금강경', 방송 강의 내용 정리해 출간…각종 예화들며 상세한 해설

육신이 이제 주인을 여의니 (四大今離主)
참된 사람이 불 가운데서 웃고 있네 (眞人火中笑)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此是甚麽物)
이 가운데 부처와 조사는 없다 (箇中無佛祖)

2000년 12월 28일, 세상이 새해를 앞두고 들떠 있을 때 인공당(印空堂) 상묵(象默) 스님은 임종게를 남기고 강화 전등사 극락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 47세 세납 64세였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마곡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상묵 스님은 용주사 불교전문 강원 등에서 이력을 마치고 수행에 매진했다. 선 수행으로 가풍을 높이고 교학을 연마해 종장의 반열에 올라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쳤던 상묵 스님은 불국사 강주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등 소임을 올곧게 수행했다.

그러나 상묵 스님이 남긴 유고(遺稿)는 거의 없었다. 다만, 불교텔레비전(btn)에서 60회에 걸쳐 <금강경>을 강의 했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전통적인 <금강경> 해석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끌어다 비유한 것이 시청자들을 매료 시킨 것. 거기에 고승들의 예화나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불교 기초 교리들을 교리해설서 이상으로 상세하게 곁들임으로 방송을 통한 강의의 새로운 맛을 보여줬던 것이다.

상묵 스님의 원적 만 6년이 지난 시점에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상묵스님의 금강경>이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32분(分)으로 구성된 <금강경>의 각 분마다 총괄적인 해석을 단 것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간명하지만 각 분의 대의와 의미, 주의 깊게 챙겨야 할 핵심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금강경>의 핵심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일으킨 27가지의 의심. <금강경>은 이 27가지의 의심을 끊어주는(27斷疑)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상묵 스님 역시 이 27가지 의문을 아주 상세히 설명함으로 <금강경>의 골수를 전하고 있다.


상묵 스님



상묵 스님의 금강경
조계종 출판사 | 1만5000원


장윤 스님

공(空)을 설명하는 지극한 가르침이 <금강경>이지만 정작 경전 속에는 '空'이란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상묵 스님은 '묘행무주분'에서 아주 쉽게 <금강경>의 대의를 설명한다.

"<금강경>은 우리가 한 행위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 하찮은 일로 생색을 내면서 추잡스럽지 말라. 어떤 일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을 일러 줍니다."

상묵 스님 역시 '空'이란 글자를 끌어대지 않고 공을 실현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금강경>의 핵심이라 하여 불자들이 줄줄 외우고 다니는 4가지의 '4구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네 번 째 '4구게'에 해당하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자.

"우리는 현실을 도피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절해고도에 있다 해도 현실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현실도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꿈 꼭두각시 거품 이슬 번개와 같은 현상이 유위법인 것 같지만 부처님의 묘관찰지로써 관찰할 때는 유위법이 아닌 열반적 정의 모습이라 부처님의 설법과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고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가장 애독한 텍스트다. 53명의 해석이 출중하여 '금강경 53가해'란 말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학자 강백들이 <금강경> 해설서를 내놓고 있다. 무릇 '금강경 100가해'의 시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통해 전하는 지극한 가르침을 오롯이 전하는 선지식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상묵 스님의 금강경>은 제자인 장윤 스님(전등사 주지)의 원력으로 발간됐다. 장윤 스님은 "몇 해 전부터 스님이 남기신 법음을 녹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및 감수를 거쳐 이 책을 펴내게 됐다"며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되살리면서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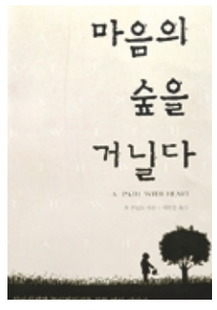
명상은 '강아지 길들이기'와 비슷한 것

최근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명상열풍이 웰빙 바람에 편승해 요즘도 거세다. 명상이란 무엇일까? 또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것일까? 저자는 이 두 질문에서 출발해 명상의 의미와 목적, 실용적인 수행법 등을 갖가지 일화와 유머, 통찰로 버무려 놓아 읽기가 우선 편하다.

이런식이다. 저자는 명상이 강아지 길들이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가만이 앉아 있어!"이렇게 소리지르면 강아지가 말을 듣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강아지는 벌떡일어나 도망칠 것이고, 쫓아가 다시 잡아 앉히면 다시 껑충뛰거나 난리법석을 피울 것이란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런 현상을 저자는 우리 마음에 빗대어 설명한다. 저자는 "우리 마음은 강아지와 아주 흡사합니다. 다른점이라면 우리 마음들이 강아지보다 더 엄청난 난장판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강아지를 길들일 때에는 자꾸자꾸 반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1974년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저자의 화려한(?) 수행이력에 걸맞게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명상 수행이 까다롭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란걸 깨닫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마음의 숲을 거닐다
잭콘필드 지음
이현철 옮김
한언 | 1만9000원

중국불교 현장답사 생생한 '보고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지만 '환희'다. 혈혈단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럼없이 첫 인사를 나누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운수납자의 모습으로 중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발로 쓴 여행기다.

저자는 사진기를 목에 걸고 옛 선지식들이 머물렀던 절을 찾아 낯설은 중국땅을 헤매는게 일종의 구법을 향한 만행이라 생각하고 다녔다.

그 만행속에서 저자는 관광지화된 북경 근교의 사찰 모습을 보며 중국불교의 험난했던 법난과 문화혁명의 폐해를 읽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저자가 본 중국불교의 한 단면에 불과했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저자는 중국불교가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문화혁명때 파괴됐던 사찰 대부분이 활발히 불사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며 중국불교가 그 옛날 화려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비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또한 저자는 "수많은 여정중에서 양주 고민사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함께 참선하는 모습, 석상사 무문관의 용맹정진 모습 등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내비쳤다. 이 책에는 중국의 3대석굴과 4대 불교성지를 비롯해 티베트 사찰들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환희/중국사찰기행1
정운 스님 지음
솔바람 | 1만1000원

인간을 가장 사랑한 부처님…그 생애를 배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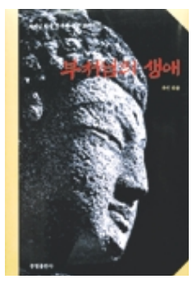
동양 고전과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된 부처님의 생애. 저자는 세계 어떠한 성인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한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자는 부처님의 거룩한 생애를 바깥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저자가 소설이라는 비교적 흥미를 끄는 문학장르를 선택한 것도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다.

이 책은 부처님 탄생 전부터 인간으로 태어나 고행을 겪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책은 '부처님 탄생 전'과 '부처님의 생애' '근본교리'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특히 '생애편'에서는 출가 이전과 출가 이후 고행, 깨달음, 교화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 놓아 책장이 가볍게 넘어간다.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근본교리' 편에서는 팔정도, 계정혜 3학, 12연기 등 교리적인 해설도 곁들어 놓아 초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처님의 생애
주선 엮음
중명 | 9000원

김 모락모락 나는 밥~ 그 보다 따뜻한 이야기들

불교방송 심야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를 진행하고 있는 김사인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산문집을 펴냈다. 제목은 '따뜻한 밥 한그릇'.

이 책은 국밥집에서 주인 할머니에게 나이도 많은데 집에서 쉬지 왜 힘들게 일하느냐며 걱정해주는 손님과 되려 건강에 안좋으니 술좀 그만 먹으라고 염려해주는 주인 할머니와의 정겨운 대화, 마음의 벗, 차 한잔의 여유 등과 같이 저자가 일상에서 보고 느낀 단상들을 다소 어눌한 어투로 적어 놓았다. 또한 이 책 곳곳에 들어 있는 원로 사진작가 신철균씨의 흑백사진들은 읽은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화롯불 역할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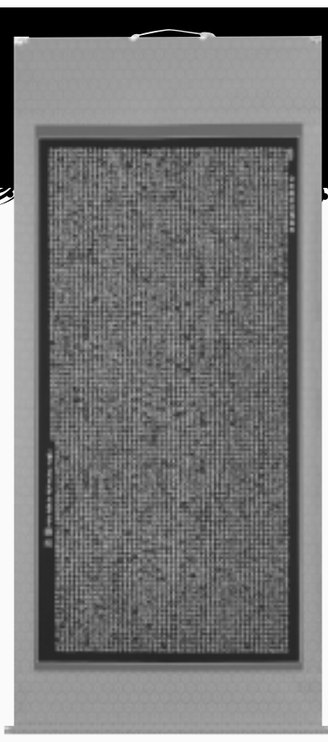

따뜻한 밥 한그릇
김사인 글 | 신철균 사진
큰 나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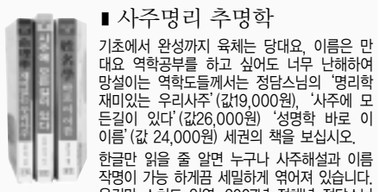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4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5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6	꽃비	원성	마음의 숲
7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8	오체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9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10	이혜가 요가	BKS이혜가	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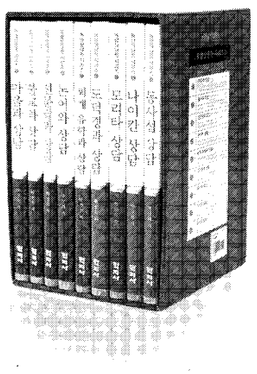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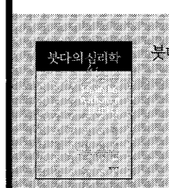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字를 廷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금분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七佛通揭(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뱀,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니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靈(부귀존령) 得福甚多(득복심다)하실 것입니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 × 가로 78.5㎝ (양면은 14K금붕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廷潭합장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 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섭 상담
박성희 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저 · 전현수 외 공역
304면 · 신국판 · 양장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下
존 카밧진 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 각권 10,000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샌드라 앤더슨 외 공저 · 조옥경 외 공역
25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 20,000원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전혀 지루하지 않은 ‘윤회’”

한암예술단 ‘바다로 가자’ 뮤지컬 공연, 25일 천안 한암아트홀


한암예술단의 야심작인 뮤지컬 ‘바다로 가자’ 리허설 장면.

15명의 배우들 물방울로 등장 중생들 삶 표현
‘돈키호테’ 임태성 감독 음악 관객들 사로잡아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바다에 의해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 저 편에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신비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

천안 한암사 주지 원철 스님이 또 한 편의 뮤지컬 작품을 내놓았다. 제목은 ‘바다로 가자’. 2월 25일 오후 3시 천안 한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제목을 얼핏 들으면 ‘해변으로 가요’라는 대중가요가 생각나 가벼운 여름 소재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 경쾌한 느낌의 제목과는 달리 불교의 ‘윤회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에는 15명의 배우들이 역할을 맡은 물방울들이 등장한다. 넓은 바다는 이 물방울들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 졌는데, 여기서 이 물방울들은 중생들의 삶을 의미한다. 대본을 쓴 원철 스님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드라망이 구슬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 졌듯이 바다의 구성원들인 물방울들의 소멸과 재탄생 모습을 통해 인간 세상의 윤회사상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너무 오래 살아 지쳐버린 할머니는 외로움에 절규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바다로 가고 싶어한다. 우리 인간은 바다에서 왔고 결국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할머니는 조물주를 상징할 수 도 있고 불성자체를 상징할 수 도 있다고 한암 스님은 말한다. 할머니의 슬픈 운명과 갈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윤회의 매개체인 물방울들이 등장해 경쾌한 춤과 노래를 선사한다. 할머니와 함께 바다를 찾은 물방울들은 바다앞에서 소멸하고 재탄생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윤회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져준다.

너무 주제가 무거워 뮤지컬의 큰 장점인 ‘재미와 흥미’를 다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차경희 연출자가 한마디로 일축한다. “작품중에는 감초와 같은 개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자연웃음을 관객들에게 많이 선사하지요. 가령 심각한 표정으로 죽음조차 두렵지않다고 무게를 잡고 있는 물방울이 개떼를 보자마자 무서워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희화적 요소들이 가득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놓쳐서는 안될 것이 하나 더 있다. ‘돈키호테’ 등 이름만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작품을 내놓으며 뮤지컬 음악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임태성 감독의 음악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때론 경쾌하고 또 때론 장중한 스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울고 웃길 예정이다.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을 발표하는 한암예술단은 어린이 연극예술문화공연단체로 2005년에 창단돼 ‘하얀눈이 내리네’ ‘굴러라 굴러’ 등을 공연했다.

원철 스님은 “어린이 배우들의 대사에 직접적으로 불교용어나 교리적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작품 배경과 주제는 분명 ‘윤회’라는 불교사상을 담고 있다”며 “주제의 무거움을 탈피하기 위해 대사를 간결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투를 삽입시켜 충분히 재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1)592-4747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②

‘은듕경’에 숫자로된 음정 기록 남아

1910년대 - 1930년

음악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 오는 구전방법이 있고, 국악에서 사용하는 정간보가 있다. 또한 1895년 우리나라에 전래된 서양기법의 오선보가 있다.

불교음악역사의 기록은 1925년에 발행한 ‘은듕경’과 1926년 10월 1일부터 발행된 잡지 ‘불교’(통권28호)에 수록된 내용, 1921년부터 시작된 대각교 운동을 기록한 ‘대각교 의식’에 기록된 내용 등이 전부다.

1910년 각황사서 첫 불교음악 시작
기록은 없어 기원이라 단언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교음악이 시작된 곳은 1910년 10월 27일 전국의 각 사암승려가 의무금을 각출해 서울 북부 수진방 전동에 세운 조선불교 중앙포교당 각황사다. 이곳에서는 1912년부터 일요일에 음악강습회를 실시했으며, 8월 28일마다 수료증 수여식까지 거행했다. 그러나 강습회 내용은 서양기법의 음악인지 확인할 수 없고 문헌상으로도 기록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교음악의 기원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불교총람>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부다. 문헌으로 기록된 찬불가는 대정14년(1925)에 권상로 스님께서 발행인이고 조선불교중앙포교원에서 발행한 ‘은듕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은듕경’에 기록된 찬불가의 모습은 박자와 조성이 기록돼 있으며 계명도 숫자로 쓰여져 있다. 곡목에는 ‘찬불가, 회담수호은’ 외 은듕경을 주제로 한 찬불가 10여곡과 ‘신불가’ 등 12곡정도가 수록돼 있다. 이때까지 오선보로 기록된 찬불가는 없었다. 왜냐하면 조학유 스님께서 서언에 남겨 놓은 “본래 불교에 여러 기종의 창가는 있었으나 다만 가사뿐임으로”라는 서두의 글로 알 수 있다. 결국 1926년 이후 불교음악에 사용되었다. 다시 정리해 보면 1910년부터 각황사에서 일본 유학승들 중심으로 계몽연극과 함께 민중교화방편으로 찬불가가 활용 되었고, 용성 스님께서 대각교 운동을 시작한 1921년에는 창가로 찬불가가 시작됐다. 1925년에 권상로 스님이 발행한 ‘은듕경’에는 숫자로 음정이 기록되어 있고, 1926년 조학유 스님이 발행한 ‘잡지’에서는 “주곡이 불일하고 통일을 숙망하나 찬불가가 보이지 않으니 부득이 타종교의 사용치 않은 각종 호곡들을 인용하고 첨삭하여 편술하였노라, 후일 작곡가에게 양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신 · 구 작가들 다양한 실험作 돋보여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展, 2월 21일~27일 경인미술관

한국불교미술계의 나아갈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불교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관에서 ‘제1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색’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김선태 씨의 불화다. 부조위에 유약을 바르고 그위에 채색하는 기법을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한 살린 작품을 선보였다. 고승희 작가의 ‘마음을 가져오라. 그대를 편안하게 하리라’ 역시 세련된 색감과 화려함이 돋보인다. 고 작가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지장보살은 패션모델조차도 혀를 두를 정도로 세련되고 멋스럽게 표현돼 관람객들의 눈을 고정시킬 것 같다. 특히 그의 작품은 전통 불화의 모습을 뛰어넘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함께 종이죽과 아크릴물감으로 만들어낸 성지영 작가의 ‘천진불(天眞佛)’도 소재나 표현에 있어 불교미술이 얼마나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역량있는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불교미술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획전은 젊은 작가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전통불화의 현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1982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뿐 아니라 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과 국립광주박물관 강순형 관장 등 불교문화재계의 유명 인사들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들을 포함한 한국불교미술협회 소속 회원 44명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선보인다.

김창균 회장은 “젊은 작가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한국불교미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개최 의의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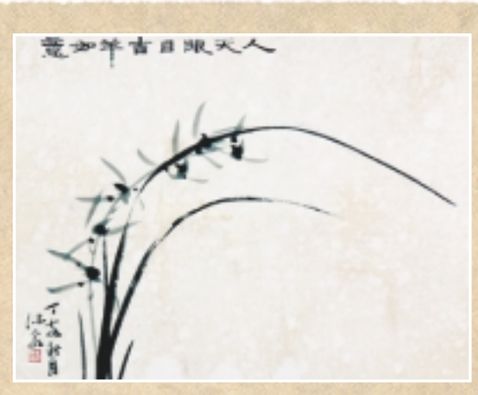
두륜산 일지암

장인성 시인

초당(草堂)에는 지금도
초의선사 그림자가 서성이는지
알싸한 풀냄새가 불을 후린다

소치(小痴)도 여기서는
시퍼런 풀냄새를 벼루에 갈아
푸른 물 붓에 찍어 난을 쳤으리

풀냄새 몇 방울 찻사발에 남겼다가
나오네 찾아오면 잔을 들어 권했으리.



일지암(一枝庵)-시(詩)·서(書)·화(畵)·다(茶)에 대한 예도(藝道)가 신선의 경지라 하여 ‘초의사풍(草衣四風)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고고했던 초의선사가 일생을 보낸 초당 암자로 남종화의 태두인 소치가 이곳에서 선사의 사사를 받았다. 그림: 이상배 화백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흥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최첨단의 시설 최상의 교육 영남불교대학 부설
유치원 · 어린이집 원아모집
< 최대불교대학 · 기도성취 및 복지대도량 > -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참좋은유치원 원아모집
◆모집대상 : 6세, 7세(2001년 3월 1일 ~ 2003년 2월 28일 출생)
◆입학생을 위한 특전 - 입학금면제, 저렴한 교육비, 체육복 및 가방 무상 제공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3×4) 3매
◆접 수 처 : 참좋은유치원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 2층) - 선착순
☎ 문의 053)476-6767

참좋은어린이집 원아모집
◆모집대상 : 3세 ~ 5세(2003년 3월 1일~ 2006년 2월 28일 출생)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3×4) 3매
◆접 수 처 : 참좋은어린이집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 1층) - 선착순
☎ 문의 053)476-6767

※ 접수기간 : 2007년 2월 15일 ~ 선착순 마감
♣ 영남불교대학의 명예를 걸고 지도합니다 ♣
생태공원과 전통문화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영남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4월 첫째주 개강, 주 · 야간반, 주1회
▷ 학력, 연령 상관없이 성인 누구든 입학 가능합니다. ☎ 문의 : 053)474-8228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8일 개강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기초교리,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안양불교대학 특강교수
◆세민스님 - 전 해인사 주지
◆도영스님 - 전 조계종 포교원장
◆법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현각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정산스님 - 서울 경국사 주지
◆현종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국장
◆현호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권기종 교수 -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장
◆엄 앵 란 - 불자 방송인
◆남일우, 김용림 - 인기 불자탤런트
◆최 영 중 - 불자가수 ‘108가요 진행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 문의전화 ☎031)444-5935~6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 위산의 수고우

위산 영우(潙山靈祐, 771~853)는 백장의 큰 제자이다. 중국적인 선을 창출한 육조 혜능의 돈오사상이 마조 도일에 이르러 융성해지고, 또 회해의 <백장청규>에 의해 선원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운수납자들이 한 분의 큰 스승 회상에 모여 여법하게 수행하는 새로운 가풍이 전국 방방곡곡에 확산된다. 총림제도를 최초로 형성한 선문이 영우와 그의 제자 혜적이다. 위앙종이 선종 5가 7종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우게 된다. 위앙종이란 말은 위산 영우와 제자 앙산 혜적(仰山慧寂, 807~883)의 첫 자를 따서 만들어진 종파란 뜻이다. 그러나 위앙종은 5대에 150년경과 후 송나라에 이르러 선문이 끊긴다.

위산에 숙세의 인연이 다 됨을 짐작한 위산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한다.

위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엔 산 밑 마을에 가서 한 마리의 검은 암소가 되어 왼쪽 겨드랑 밑에 '위산의 중, 아무개'라 쓰겠다. 그때 만일 위산이라 하면 암소를 어찌하며, 암소라 하면 내 이름은 어찌 하겠는가?"

앙산이 나서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전등록>권9 '위산우')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삼세설이 있다. 위산은 대 도량의 방장이지만, 미래세에는 위산 아래 검은(水) 암소(?)가 된다. 위산은 암소이면서 위산이고, 암소는 위산이면서 암소이다. 위산승이라 부르자니 현재는 검은 암소의 모습이고 암소라 부르자니 일찍이 위산승이었다. 앞 선화에서 위산이 '내가 죽은 뒤엔 산 밑 마을에서 한 마리의 검은 암소가 된다' 함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이다. 즉 축생 등, 인간과 다른 종류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위산이 소가 되었을 때 '소냐? 위산이냐?'를 이르라는 공안이니 이류와의 차별도 역시 무차별이어서 찾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아름답고 현묘한 '수고우' 공안에 뜻을 밝힌 후세 한 선장의 눈 푸른 게송이 있다.

산 위에선 산승이요 산 아랜 암소라
(山上山僧山下牛)
털 나고 뿔 달린 무리와 뒤섞였네
(披毛載角混同流)
온 세상이 부처가 되고 조사 되려는데
(普天成佛與成祖)
위산만 홀로 검은 소 되었네
(獨有潙山作水牛)

– 불국백
<선문염송>제9권 375칙

내가 죽은 뒤 산 아래마을 검은 암소되면
그때 나는 위산인가 암소인가?
"삼세를 자유롭게 관통하는 이타교화"

위의 게송, 1행과 2행에서 '털 나고 뿔 달린'이라 함은 이류(異類)를 말한다. 즉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이다. 영우는 위산에 있을 때는 위산 승이고, 산 아래 있을 때는 검은 암소이다. 위산은 털 나고 뿔 달린 모습으로 동류(同類)인 수선납자들의 눈과 귀를 혼란시키는데, 실제로는 오랜 관습과 고정된 사유를 벗기고 삼세(三世)를 자유롭게 관통케 하여 이항대립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3행과 4행은 누구나 성불작조(成佛作祖)함이 목표인데 위산만은 '성자되려는 마음마저 무너져, 이류인, 소가 되어 삶의 현장으로 입전수수(入廛垂手)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육도(六度)의 행으로 저자거리로 돌아와 중생제도, 곧 이타교화(利他敎化) 함을 의미한다. 아니 위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류중행의 법문, 역시 동류의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입전수수의 가르침으로, 몰록 자성본원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런 사유는 불경 도처를 관통하는 무주(無住) · 무상(無相) · 무아(無我) 사상의 형상화이다. 곧 위산의 드높은 불이(不二)의 정신세계를 찬탄한 게송이다.

열반의 공안, '수고우' 선화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위산은 총림을 이끈 지 40여 년 좌탈입망한다. 그의 선맥을 이은 제자가 43인. 상족으로는 앙산 혜적, 향엄 지한, 영운 지근 등이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❷ 세 가지 쌈밥

쌈밥은 원래 사찰에서는 주먹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사찰에서 스님들이 길을 떠나거나 울력이나 농사일을 할 때 주먹밥을 싸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대중 스님들이 모두 산에 올라가면 공양간에서는 이 주먹밥을 만들어 지게로 져 날라 스님들의 허기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 나는 나물을 이용해 주먹밥을 만들고, 절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넙적한 잎사귀를 따서 싼 것이 바로 사찰 주먹밥, 즉 쌈밥인 것입니다.

잎사귀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밥을 싼 잎 째로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잎을 벗겨내고 밥만 먹기도 합니다. 또한 무슨 잎으로 밥을 싸느냐에 따라 속에 들어가는 밥의 양념도 달라집니다.

오늘 만들어볼 쌈밥은 냉이와 머위, 쑥을 이용한 것입니다. 냉이는 춘곤증에 특히 좋은 나물인데, 독특한 향이 달아난 입맛을 되살려줍니다. 또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 B1이 봄나물 중 가장 풍부합니다.(100g당 0.18mg) 쑥은 넘어져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날 때, 피부병이 났을 때 쑥뜸 등으로 활용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A와 B1, B2, 철분,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 부인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머위는 감기나 기침, 황달, 현기증 등에 효과가 있으며, 페놀류가 많이 함유되어 독특한 쓴맛과 떫은맛이 나 입맛을 돋워줍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나물을 이용해 다양한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이는 입맛 되살리는데 최고
쑥, 미네랄 풍부 부인병에 효과
머위는 떫은맛 독특한 쓴맛 나



세가지 쌈밥의 재료. 쑥, 머위 잎, 냉이(위로부터 시계방향).

세 가지 쌈밥

재료: 냉이, 머위 잎, 쑥, 쌀, 된장, 간장, 참기름, 깨소금, 무, 식초, 간장, 고추장, 밀가루, 메밀가루, 설탕, 겨자

1. 냉이와 쑥은 데쳐 송송 썰어놓고 머위 잎은 데쳐둔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짓는다.
2. 냉이와 쑥을 따로따로 담아 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비벼둔다.
3.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따로 반죽해 전병을 부친 후 ②의 재료를 한 숟가락 정도 넣어 말아둔다. 이때 냉이 비빔은 메밀전병에, 쑥은 밀전병에 싼다.
3. 밥은 된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해서 비빈 후 참기름에 무친 머위 잎을 펼쳐 한 숟가락 정도 넣어 싼다. 머위 줄기로 한두 바퀴 돌려 묶어 준다.
4. 고추장, 식초, 설탕을 넣어 초고추장을 만든다.
5. 무는 강판에 갈아 간장과 식초, 겨자, 설탕을 넣고 무겨자장을 만든다. 쌈밥에 따라 두 가지 장을 곁들여 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❷

꽃향기에 취하여

효림 스님 | 바보새





안된다 안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서
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서
더 이상 같은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 '이웃' 부분

확고한 민중사랑의 정신, 양극화 비판

임효림은 시를 쓰는 승려 시인이다. 그는 2005년 전태일문학상 특별상 수상식에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상"이라는 발언을 한 민중의 벗이다. 종단개혁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이래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굽힘없이 노력한 개혁승이자 운동권 스님이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다"는 만해의 신조를 화두로 가지고 사는 진보적 자유사상 실천 승려이다.

그는 1968년 18세에 출가하여 운수납자로 수행을 하다가 1987년 6월 민중항쟁을 깃점으로 재야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 백담사 조오현 스님을 만나 시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문예지인 <유심>지로 등단하였다. <유심>은 1918년 만해가 창간해 3호까지 나오다 만 월간 교양잡이였는데, 이를 만해실천사상선양회에서 복간하여 현재 문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 문예지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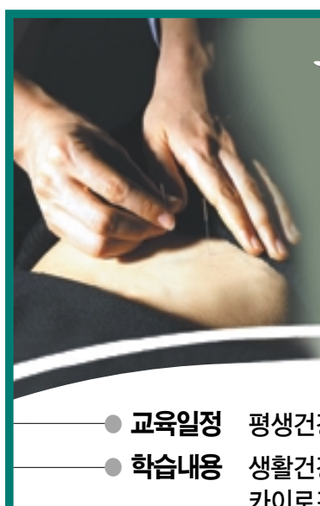
2006년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재정마련 전시회가 경복궁 근처에 있어서 갔었는데, 다음과 같은 스님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

뼈빠지게 일하지만
세끼 밥을 걱정한다

간단명료한 2행의 시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의 비극적 노동현실을 일갈하고 있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밥을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하여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뼈 빠지는 노동인 것이다. 국가복지가 취약하여 국민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겨우 생계를 때우거나 걱정할 뿐이다.

2007년 2월초 프랑스의 세계석학 자크 아탈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마디 했다.

빈곤층이 선진국보다 높은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더욱 높여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확고한 민중 사랑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스님은 현재 한국사회를 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빈부차이가 계속되면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헬스케어 전문가과정
수강생 모집

인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치유능력을 키우고, 전통침술을 통해 평생건강요법으로 자신의 건강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일정 평생건강요법 전문가과정(3개월 과정)
- 학습내용 생활건강 침(전통침), 피부미용 침, 경락 및 경혈 카이로프락틱(교정), 스포츠마사지, 자발공(氣) 및 요가
- 강의 특징 및 특전
  이론과 풍부한 실습을 통하여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움
  문화센터 및 지역문화사에서 강사활동 가능
  대기업, 중소기업기관, 단체 연수 강사 활동 가능
  국내봉사 및 해외봉사 가능
  TAWA 전문가 과정 수료증(Traditional Acupuncture Welfare Association)

• 개 강 일 : 2007년 3월 5일(월)
• 교 육 일 정 : 매주 2회 2시간수업(월, 화요일) 오후 1시~3시
• 인 원 : 20명 이상
• 교 육 문 의 : 02)706-9414

전통침구복지학회 | 코리아헬스케어아카데미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병 예방 및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 (원장직강<공학박사 : 교수>)

6. 강 좌 일
- 2007년 3월 2일 (금) ~ 3월 4일(일) 2박 3일

7. 특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비법교재 및 사혈기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 문의시 세부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립니다.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27471/ 국민은행 222-25-0005-381 (입금자: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재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허년)

비 법 전 수
심령치유,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스님 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빠짝빠짝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범 천 명 리 강 의 실

사주(일진법)	3월 5일(월)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3월 6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3월 7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3월 9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사찰
(50대 초반)
011-758-0286

문화재 불교전통 범음 범패를 배우실 학인스님을 모십니다
(천수바라, 작법, 나비춤, 상용염불)
▷충남아산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5458-9530

사찰에 근무하실 분 모십니다
법당 0명, 후원 0명
▷경북 경주
011-266-28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744-10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9-9264-7000

참신한 비구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1)242-16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4754-0396

가족처럼 함께일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남산
054)744-1008
017-206-0113

가족같이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분
(40-50세 사이)
010-8976-26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통사찰
041)836-5066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오래된 작은 암자 구합니다
▷관리 보수하면서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50대 비구승입니다
▷적당한 임대나 월세 가능합니다
010-9828-5595

기도 열심히하는 참신한 비구입니다
기도스님 소임을 원합니다
연락주십시오
010-6831-2544

기도스님(비구 · 비구니)
1. 종단 · 종파 관계없음
2. 역학 · 상담비법도 배우고 보시도 받고
3. 출퇴근도 가능함(새벽예불없음)

스님이 되실 분(행자)
1. 기혼 · 미혼 관계없음
2. 생활불교 실현의 마인드가 풍부한 분
3. 정통성과 현실성의 스님공부를 하려는 분

당 사찰은 상담불교의 토착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운영방법으로 등록신도 수천이상의 포교당입니다. 관심있는분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포교원 벽 운 사
전화 02)979-0108 / 02)971-4958 서울 노원구 공릉 3동 388-4호
www.bwjisan.com

사찰 암자,포교당 창건하시는 스님안내
법당불사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큰 법당에 모셔야할분
후불탱,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데 막상 조성을 하자니
날짜도 없고 금전으로 고민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은 대웅전에 모실분 후불목탱순금, 칠성목탱순금, 신중목탱순금, 부처님좌대 포함 4자3치 삼신불 기타 전체를 스님해외 사정상 절반도 안되는 가격 인연바람.
대작품 가능성이 있는분만 답사
010-6411-2882

결혼신청 평생연분 소원성취

불교신도 아가씨를 바랍니다.

신랑(총각)은 1963(계묘년 음력10월 25일생 소방서공무원)입니다.
아래주소 전화로 연락 기다립니다.

051)254-8812 / 011-201-0338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56 용화정사 신도 합장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꾸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결혼인연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신주 영가천도 · 삼재소멸 여래경 지장경 약사여래 업장소멸**

직장인을 위한기도★가족이 함께기도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촛불잘밝히는방법★장사(사업)잘하는방법

행복을 찾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따 · 소외감 · 비만 · 스트레스 · 악몽 · 변비 · 알콜중독 · 부부갈등 · 난폭한성격 · 원한관계 · 우울증 · 심근경색 ·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 이사 · 개업 · 묘지이장 · 방생 · 입학 · 시험합격 · 기타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 010-7377-9446 / 019-434-0878 / 017-520-7546 / 010-2331-0354 /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 각 암 대종사**
- 부종정 : 혜 산
- 중앙종회의장 : 정 관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법 진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혹은 「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595-7878

사찰안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조경완료
- 바로 앞 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포교당안내

- 위치: 동두천 땅 500평(산)
- 법당 50평,요사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9-477-6674

포교원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258-114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찰안내

- 위치:천안근교
- 부지:140평
- 법당:12평
- 요사:16평
- 가액:5천5백

- 위치:서울
- 부지:95평
- 법당:24평
- 요사:30평
- 가액:6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중구 내동 신포시장 부근
- 삼층건물중에 3층, 30평, 전세만 6,500만원 월세 없음.
- 법당1, 방3, 부엌1, 화장실, 법당시설 양도

017-325-7745
010-7121-0408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방 4칸(스님방, 친견실)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각 시설일체 갖추어져 있음,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1500만원

053)783-0106
016-528-3736

포교당안내

- 위치: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임법당 포교원 방2 욕실 도시가스 조그만 거실겸주방, 부처님 4불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데 무속인도 관계없음
- 꼭하실분 전화요망

010-9913-0031
031)314-0031

포교당안내

- 위치:대구 남구 대명3동 대구대학앞
- 4층건물에 2층, 42평 시설완벽, 주방, 방1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시설비 집기일체 1천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053)629-6227
011-839-3881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경남 거창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부처님 전 기도후 점지 된 땅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사찰안내

- 위치:천안근교
- 산밑의 아담한 절
- 대지 150평, 법당, 살림채 50평
- 전세 3000만원
- 3월 입주가능

010-9425-2277

오래된 사찰안내

- 법당20평 삼성각5평, 미륵당40평
- 요사채 방5칸, 창고2채, 텃밭1,300평 감나무밭 3종 수확중
- 보증금 3,000만원 연 24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4782-4465
5시 이후에 전화 요망

포교원안내

- 위치:사당역 2분거리 상가 2층
- 방3, 거실, 주방, 욕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약간

011-9150-2284

포교원안내

- 위치:밀양시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땀흐르는 비석)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 약 200평 태양열, 단독지하수 완비
- 요사채(슬라브건물)1층 60평
- 법당:20평(아미타불 삼존불)
- 가액: 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8487
010-5883-5005

한눈에 반하는 천하명당 사암사찰터

- 연수원, 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임야 경북청송군 두남면 하속리 산 85 약2만평,평당 1만원(19600평)
- 교통편리한 이차선도로근접, 마을입구
- 계곡과 물이 흐르는 관리지역인 명당터

연락처 010-8805-1239 (김사장)

찬란한 부처님 가피! 쏟아지는 기적의 체험!

74회 3000배 용맹정진

날아갈 듯 상쾌한 몸! 샘솟는 자신감!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립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유일의 3000배!

500만 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냅시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날 짜 : 2007년 2월 24일(토) 저녁 9시 ~ 2007년 2월 25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장소 : 하얀마음선원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 청견스님 011-9088-9449
⊙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군자역방향 100M GS광진주유소 2층 지하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어린이대공원정문방향 200M GS광진주유소 2층
⊙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실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비 좌회전 50M 경우빌딩 4층
※부산은 노포동 터미널에서 분당행 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대구 신천법당 (053) 743-0063
☞ 지하철 동대구역 4번출구, 중앙고속 맞은편 건물 3층
http://cafe.daum.net/sorisan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전문으로 의식하실 분)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갖추어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2007년도 영남범음범패및 작법무

제4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7년 3월 24일

무형문화재 제9호 혜륭 큰스님의 수제자이자 통도소리 어장을 맡고있는 청봉스님은 4세때 통도사 통도소리 어장이신 일호스님의 문하에 입문.
1999~2001년 대한불교 조계종 양산 통도사 상노전 직무를 역임하였고 통도사소리 보유자로써 부산불교교육대학에도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9호이신 혜륭 큰스님께 특별전수를 받아 수제자가 되어서 통도사 소리맥으로 작법무와 징,강쇠,북,호적까지 모두 지도하고 있다.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토요일 오후 4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 1개월
(요령,목탁치는법.도량석.새벽종성.조석예불.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 5개월
(상용영반.종사영반.관음시식.화엄시식. 구병시식.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 1년
(범패.징.강쇠.북.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 3년
(점안식,예수재,수륙재,영산재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 1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회비 월10만원

◇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수 있으며 인연이 있는 스님 (약간명)은 본사에 숙식 하면서 배울수도 있습니다.

영남에 있는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는 사찰의 규모가 가장 크며 전통 그대로 가르치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범음범패를 공부하실 회원을 모십니다

대구영남의 대중들이여!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 보십시다

赴焚修하되 須早暮勤行하야 自責懈怠하며 知衆行次하야 不得雜亂하며 讚唄祝願하되 須誦文觀義언정 不得但隨音聲하고 不得韻曲不調하며 瞻敬尊顔하되 不得攀緣異境이어다

◆요령 목탁은 모든 의식의 근본이 되는 법구입니다. 더불어 광쇠 태징 북 등을 범패와 작법에 맞게 다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불과 불공, 연중(특별)행사의 법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재 천도재 예수재 수륙재 시다림법문(임종염불) 등에 임하여 부족하거나 황당하셨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불상과 탱화를 모시는 점안법회는 정말 거룩한 의식이지요?
◆주요 경전과 의식의 우리말 독송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삼십구위 일백사위의 신중작법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를 배워봄은 어떠하십니까?

*이것뿐 이겠습니까? 혹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는 마십시오, 발심만 하십시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하고, 의심스러우시겠지요? 와보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다.
*불교의 의식에 바르게 임하는 것이야 말로 선(禪)이며, 교(敎)이며,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가야 하는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진정 현성에 부끄럽지 않고, 시주에 수치스럽지 않음을 추구하려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교계의 대덕 큰 스님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의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주변의 가까운 도반과 함께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得粥祝願하되 不解其意하면 亦不壇越에 應羞恥乎며 得食唱唄하되 不達其趣하면 亦不賢聖에 應慙愧乎아 人惡尾蟲이 不辨淨穢인달하야 聖憎沙門이 不變淨穢니라

나무관세음보살

※제1기 회원모집 (삭발염의 출가승려에 한함)
※접수마감 및 교육원 개강 : 2007. 3. 9(금) 오후 2시 (회원교육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제가불자의 회원모집은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 육 원 : 경부선 영천IC에서 10분 거리 (慈 光 園)
※문의전화 : 054)336-4475~6 / 010)4579-0408

대경범음범패연구보존회 정회원 일동 합장

바로보인 전등록 바로보인 선문염송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앙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께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파격할인!! 3월말까지 바로보인 전등록 전 5권 1질 구입시 45% 할인된 가격인 5만원에 드립니다.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수제화로 제작

滿行靴

가득할 만 행 화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최고의 선물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정승복 064)724-7999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청정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알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욕심 내지 말고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 인간문화재 김해자씨와 함께 만드는 누비목도리 -

누비바느질 이렇게 해보세요

바느질 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기껏해야 떨어진 단추나 양말의 구멍을 기우는 정도가 현대인들이 하는 바느질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에 위치한 누비문화원에서 진행된 누비강좌 현장에서는 좀 색다른 '바느질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강좌는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마련한 것입니다.

interview

누비장 김해자씨



"지난 1월 13일, 청도 운문사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손누비 강좌를 했습니다. 학장 스님부터 막 강원에 입학한 스님까지 한데 모여 앉아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누비장 김해자씨(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가 손누비 대중화에 나선다.

"손누비 대중화 나설 것"

그간 작품활동 외에 좀처럼 외부 강좌를 열지 않던 김씨는 앞으로 사찰과 강원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누비강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서울 사간동 누비문화원도 상시 개방해 일반인들이 목도리나 배냇저고리 등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문화원 내에 명품관도 개관한다.

김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비와 인연을 맺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차분히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02)723-0231



"손누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너무도 단순한 바느질의 연속입니다. 고요히 앉아 바느질을 하다보면 온갖 번뇌가 다 생겨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끈기와 인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김해자(55,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씨의 설명이다. 학창시절 자수나 퀼트를 하며 나름 손재주가 있다고 느꼈던 참가자들도 모든 과정을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누비 앞에선 걱정이 앞선다. '혼자만 삐뚤삐뚤하게 바느질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마음이 들렸을까? 김씨는 바느질솜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옳다 그르다, 잘 한다 못한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저 한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 바느질에만 전념하세요. '더 잘 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면 바느질을 망치게 됩니다."

솜을 넣어 누비는 볼록누비와 솜을 넣지 않고 누비는 평누비(납작누비), 바느질 간격에 따라 이름 붙여진 세누비 · 중누비 · 드문 누비 등 기본 용어부터 익힌 후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다.

누비 목도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천과 솜, 골무, 실과 바늘 그리고 천을 고정시킬 집게 등이 전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실을 다루는 법이다. 무명실을 필요한 길이대로 잘라 초를 칠한 후 다림질해 실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한다. 이때 실은 목도리 길이에서 두 뼘 정도 여유를 두고 자른다.

다음으로는 천 재단. 준비한 천을 목도리 길이에 따라 디자인해 마름질 한 후 두 장을 겹쳐 그 사이에 솜을 넣는다. 초보자에게는 선이 그려진 천이 바느질하기 쉽다.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면 천의 가운데를 먼저 홈질



'더 빨리 해야지, 잘 해야지' 하는 순간 망치게 돼
초보자에게는 선 그려진 천이 바느질하기 쉬워
무명실은 초 칠한 후 다림질해 엉키지 않게 해야

로 바느질하고, 다시 나누어진 각각의 가운데를 바느질해 네 부분으로 나누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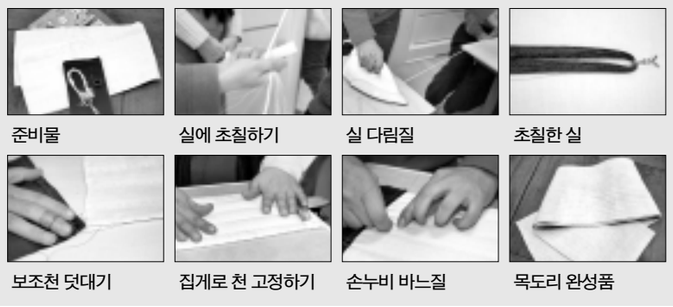
본격적인 바느질을 위해서는 보조천을 양쪽 끝에 단다. 보조천은 수예의 수틀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집게로 천을 바느질대에 고정할 때 사용된다. 실은 한쪽만 매듭을 짓는다. 바느질이 시작되는 첫 세 땀 정도는 뒤땀을 뜬다. 이는 세탁 시 올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홈질을 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지, 또 얼마나 집중해서 바느질을 하는지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참가자 박명자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바느질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차근차근 바느질을 해서 꼭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를 마친 김해자씨는 "욕심 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바느질도 정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누비목도리 이렇게 만드세요



효림원 케어복지사 수강생 모집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대표이사 무구)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제7기 케어복지사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케어복지사 강좌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전문적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수료 후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3월 6일 개강해 매주 화 · 수요일 서울 서대문구 효림원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40만원.(02)313-5124

부곡복지관, 무료영화 상영

경기도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향유와 주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영화 상영을 실시한다. 영화상영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2월 23일에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를, 24일에는 백만장자의 첫사랑을 상영된다.(031)417-3677

인류 문화속의 茶

25. 차의 전파

실크로드는 서역(西域)의 각국들과 상업뿐 아니라 민간인과 구법승, 사신의 잦은 왕래로 인해 동 · 서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 교역품 중 찻잔과 다호(茶壺)같은 종류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차를 마시는 풍속 또한 전파되어 '차의 길'을 따라 퍼졌다.

중국의 차는 파 · 촉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어 한대(漢代) 이후 동방과 서북으로 전파(傳播)되었다. 하지만 차가 자라지 않았던 북방에서는 아직 음다(飮茶)가 습관화 되지 않아 낙양에 사는 북조 관원들은 차가 우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낙양에 이주한 남조 사람들은 음다 풍속을 유지하면서 북조 관원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차(茶)를 다른 물건들과 물물 교환하는 형태로 장사를 했다. 서방 상인들도 북쪽 변강에서 교역을 하였던 관계로 중국 상인과 터키 상인은 자연스럽게 차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수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아시아와 아랍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차를 수입하게 된다. 수 · 당 이후 서쪽 변경과도 끊임없이 교역이 있었고 더욱 당대부터 대량으로 말(馬)과 차(茶)를 바꾸었으며 이것을 다마호시(茶馬互市)라 한다. 대규모 다마호시는 차가 서북민족만이 아니라 서아시아 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방의 차는 북조를 통하여 사막과 초원을 가로질러 서아시아와 유럽까지 외부로 전파됐다.

차의 전파는 실크로드를 따라 더욱 확산되어 나갔으며 북방의 소수민족들이 중계자 역할을 했다. 이들은 유차(乳茶)와 밀차(蜜茶)로 우정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점차적으로 근접한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차로서 예의를 표했다. 즉 단결과 화목을 돕는데 차를 이용하는 풍습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우유를 먼저 끓인 후 아주 진한 차와 소금을 넣어 저어서 마신다.

서아시아와 북아시아, 시베리아 산림지구는 대부분 우유를 마셨지만 차가 수입된 후에 우유에 차를 넣어 마셨다. 초원 지역에서 사는 몽골 인들은 조의(朝儀) 때 차를 주며, 다른 때에는 곡식과 우유로 만든 유제품과 차죽(茶粥)과 유차(乳茶)를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송(宋)대에는 아라비아, 이탈리아, 일본, 인도 등 각국과 무역을 하

남방의 차는 북조 통해 서아시아와 유럽 진출
송대에는 각국서 상품화된 차 · 재배 기술 수입



차를 우리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베트남인(1915년경 불로뉴비앙쿠르, 알베르칸 소장)

고 외국 상인들이 항구를 자주 왕래하여 상품화된 찻잎을 직접 수입할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차를 재배하는 기술도 배워갔다. 찻잎을 음식과 결합하여 필수 식품이 되는 지역도 있었다.

한편 인도인들은 본래 오래전부터 차를 마시는 습속이 있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차를 유입하여 무역에 관여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의 차 생산지가 되었다. 동남아의 유력한 자연 조건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차를 대량 생산하였으며, 유럽지역으로 운송되었다. 이것은 직접 중국에서 차 무역을 하는 것 보다 경제적면에서 이익이 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아시아 지역이 서방으로 나가는 중계지 역할을 하는 하나의 '차 문화권'을 형성했다. 이처럼 일찍이 중국 서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국가 및 북방의 몽골, 러시아 등에 차가 유입됐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흥성하지 않았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역학 개인지도

아직도 용신, 격국, 지장간을 찾고 계십니까?
효타비법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 (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좋아지게 됩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틀어와 황금으로 변합니다.



개심사 전경

구불 구불 범종각 기둥 자연미 극치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북으로 올라온 정맥이 안성 칠장산에 이르러 두 줄기로 갈라진다. 북진한 한남정맥은 경기도의 기맥이 되고, 서진한 금북정맥은 충남의 기맥이 되었다. 충남의 기맥 가운데 해발 677.6미터의 가야산이 내포 땅에 우뚝하다.

상왕산(象王山)은 가야산의 산줄기가 석문봉을 지나 몇 걸음 북진해 솟아오른 해발 307미터의 지봉이다. 인도의 가야산 형세가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 하여 '상두산(象頭山)'이라 하였으니, 이곳의 상왕산의 이름도 거기서 연유했을 것이다.

서산 개심사는 <사적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인 654년에 혜감국사(慧鑑國師)가 '개원사(開元寺)'라는 이름으로 초창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대웅전 기단의 옛 돌 말고는 옛적 일을 알려줄 물증은 남아있지 않다. 근대불교사에서는 경허선사를 비롯

들머리 목장 군부독재시절 조성

한 선승들이 오랫동안 가부좌를 틀었다.

개심사 들머리의 목장은 군사독재시절 당시의 권력자가 울울창창하던 상왕산 자락 6백여만 평을 배코를 쳐서 만든 것이다. 신창저수지는 삼화목장이 조성된 후 1978년도에 개심사 계곡을 막아서 만든 인공저수지이다. 이 저수지 물은 해미면 일대의 논 뜰을 적신 후 천수만 간월호로 들어간다. 해마다 겨울이면 흰빰검둥오리와 청둥오리가 날아와 겨울을 난다.

주차장에서 일주문을 지나 보현선원까지 호젓한 산길이 좋다. 이 구간은 소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계류 주변에는 조릿대, 복분자, 갯버들, 단풍나무, 때죽나무, 쪽동백나무, 산초나무 등 관목과 아교목이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다시 참나무류와 느티나무와 굴피나무 같은 활엽수들이 띠숲을 이루고 있다.

세심동 동구에는 '洗心洞' '開心寺 入口'라 음각된 허름한 자연석 두 개가 선돌처럼 서 있다. 마음을 씻는 곳, 마음이 열리는 절이라…. 사람들은 그

다듬지 않은 계단 천연덕스러워

앞에 서서 저마다 알음알이를 굴린다.

아무렇게나 다듬은 장대석으로 쌓은 계단길이 절까지 나있다. 더러 덧니처럼 삐져나온 돌도 있지만, 너무나 천연덕스러워서 그게 본래 면목인 듯이 눈 맛이 감칠 나다. 무겁고 모난 돌계단인데도, 비탈길을 구비 도는 멋이 그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울 수 없다.

주위를 돌아보면 마치 심산유곡에 들어온 듯 울창한 노송숲이다. 누군가 절이 산을 파먹었다고 했지만, 절이 산과 숲을 지켜온 산막이라는 사실을 이 노송숲이 대변해주고 있다. 개심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숲도 민둥산 목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돌계단 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연못이다. 자연석으로 약 60센티미터의 깊이를 만들었다. 네모꼴을 하고 있어서 사찰 전통연못이라기보다 조선 사대부집 연못을 많이 닮았다.

연못의 이름이 '경지(鏡池)'인 것을 보면, 기능상으로는 영지(影池)에 더 가깝다. 실제로 연못 위에는 범종각과 안양루의 그림자가 아름다이 비치고, 주위의 아름드리나무들이 갖가지 형상으로 물속에 잠겨 있어서 선경(仙境)을 연출하고 있다.

대개 사찰의 개울은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나타낸다. 이 명당수 개울을 건너야 비로소 절의 영역이다. 개심사는 이름만 세심동(洗心洞)일 뿐 이렇다 할 명당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연못을 두었다.

이 연못은 개심사 주변의 생태계 비오톱(biotop)으로 손색이 없다. 연못 속의 수서생물과 주변의 식물들은 물론, 곤충과 새들도 이 연못에 기대어 살고 있다.

이 연못 주위에는 느티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 오리나무, 말채나무 등 절로 자란 나무들이 많다. 그리고 전나무, 은행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편백나무, 벚나무 등 식재한 나무들도 멋진 생태경관을 만들고 있다.

조류와 곤충들도 개심사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관찰되고 있다. 박새, 진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동고비, 노랑턱멧새, 붉은오목눈이, 직박구리, 물떼까치, 어치, 큰오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멧비둘기 등등.


화재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물고기 그림.

이 연못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입수량(入水量)이 적기 때문에 물이 줄곧 정체상태여서 좋은 수질을 기대할 수 없다. 비가 올 때는 주변 토사가 빗물과 함께 연못으로 들어오고, 낙엽들이 물속에 가라앉아 수질의 부영양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관리

정수식물로 연못 수질정화해야

를 게을리 하면 물이 썩어 냄새가 날 정도다.

이 연못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에 갈대나 부들 같은 정수식물을 심고, 연못에는 개구리밥이나 생이가래 또는 물옥잠 등과 같은 부유식물을 띄우면 좋다. 미꾸라지나 붕어 또는 우렁이를 방생해서 수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서산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짧고 따뜻한 편이다. 연못 주변 양지쪽엔 벌써 개불알풀, 개쑥갓, 광대나물 등이 봉오리를 터뜨렸다. 이들은 생명력이 강해서 한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꽃들이 작고 볼품이 없지만, 꽃이 귀한 겨울철에는 어디서 만나도 반갑다.

연못을 지나면 돌계단을 통해 범종각 영역으로 이어진다. 돌계단 좌우에 공작단풍이 납죽 엎드려 있다. 일본서 들여온 공작단풍은 전통사찰에는 어울리지 않는데도 요즘 사찰 조경수로 무분별하게 심고 있다.

범종각의 지붕을 이고 있는 네 기둥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휘어지고 비틀려져 있다. 모두가 불구의 몸이지만, 저리도 아름답고 멋진 종각을 만들어 놓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울림(자연)에서 나온다. 부처의 세계에는 불구가 따로 없다. 부처의 화엄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해우소 뒤편으로 이대숲이 울창하다. 남해안과 서해안이 가까운 사찰에 분포하는 이대들은 전쟁에 쓸 화살들을 생산하기 위해 인공으로 심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겨울이면 해마다 이 이대숲으로 물떼까치들이 무리 지어 날아든다.

500여 년 전 성종 때 충청절도사가 사냥을 하기 위해 상왕산에 불을 놓는 바람에 개심사와 주변 숲을 잿더미로 만든 적이 있다. 훗날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대들보에다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놓았다.

묵서명을 통해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밝혀진 심검당은 가구(架構)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휘어지고 굽은 나무들이어서 더욱 명물이다.

이 천연덕스러운 미학 뒤에는 수행자들의 숲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다. 울창한 숲속에 반듯한 재목감이 어찌 없었으리오, 하지만 수행자들이 굳이 휘고 굽은 나무들로 집을 지은 것은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안 까닭이다.

전통적으로 수행자들은 불사에 쓸 나무들을 그 사찰 주변의 숲에서 구해왔다. 그래야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숲을 잘 가꿀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나무들을 써야만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 간다. 심검당의 수백 년 수명이 오늘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나무로 지은 사찰의 옛 건축물들을 일컬어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네발나비, 뿔나비 등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이 밖에 성충으로 겨울을 난 나비들로는 청띠신선나비, 공작나비, 멧노랑나비, 신선나비, 멋쟁이나비, 쐐기풀나비, 산네발나비 등이 있다.

송전철탑공사로 환경 훼손 우려

산신각 앞 능선은 개심사의 내청룡이다. 그 내청룡에 추사 김정희의 조상인 김양수(金良秀)와 그의 부인, 그리고 후손들의 묘역이 있다. 그들의 묘소가 개심사역에 들어오게 된 것은 김양수의 부인인 상산황씨(尙山黃氏)가 개심사의 큰보살이였기 때문으로 전한다. 명당답게 묘역 주변은 청장년의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잘 자라고 있다.

산신각을 뒤로 하고 솔숲 사이로 난 등산로를 30분 올라가면 가야산과 상왕산을 잇는 능선을 만난다. 왼쪽으로는 상왕산 정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능선 너머에 서산마애삼존불과 의상대사의 화엄10찰 가운데 하나였던 보원사 옛터가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일락산-석문봉-가야산으로 능선이 이어져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이 일대에 송전철탑공사를 강행해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서 불교계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장까지 상왕산 계곡에 들어서서 이래저래 골치를 앓고 있다. 하산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도 그런 까닭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개심사 연못에 비친 범종각

구로 관법사
신도회 임원 임명장 수여

관법사의 정해년은 대광명전 불사를 시작하고, 전 신도의 힘을 모아 불자와 신도님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새로 선임된 신도회 임원님들의 역할은 더없이 중대합니다. 관법사 신도님들이 화합하고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법사 주지 법상 합장

신임 신도회 임원 (2007년 2월 4일)



회 장 대덕심
부 회 장 연화심
총 무 무량심
사 서 보리심
법당총무 보현심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597-77
관법사 02)2636-6378
신도회 02)2637-6636

탈종공고

- 사찰명 : 세심사(洗心寺)
- 주 지 : 법진(이계방)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2리 산45-1번지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사천왕사
- 주 지 : 신오(전남권)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2리 114번지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봉선사
- 주 지 : 해산(이경수)
- 주 소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1리 산33-1번지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대행스님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문 우리가 지금 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대한 간절하고 확고한 믿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그렇죠. 도(道)는 생활이 도예요, 생활이. 딴 데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전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도를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이거를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깐 그냥 아예 저 개천에다 꼬라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에다가,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그냥. 무슨 별다르게 해야만 도가 아니에요.

남을 원망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시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 존경하란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사람이 바뀌지는 이율이 잘나잘나 바뀌지니깐요.

그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 이게 사람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한 찰나에 날아가도 뭐 다른 혹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대로 돌아가서 화하니깐요. 이 소리 누구나가 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행은 도인의 행으로서 우리가 산다면 요다음에도 그렇고 그냥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이죠, 뭐. 머리 안 깎았다고 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산할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잡초, 그저 덧없이 이렇게 자라는 풀들, 이거를 깎아 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 뭘 합니까. 깎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깎고 나면 또 자란다. 또 자라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머리가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또 머리를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사들이 산에서 수염을 깎으려야 깎을 수도 없고 머리를 깎으려야 깎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형편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 겁니다,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깐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남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니 요만한 것 하나 이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공신이다.' '부처님이 만 개라도 일 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깐 그저 항상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이렇게 핀 거 보면 좋죠?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우담바라 꽃이라고,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그렇게 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깐 바깥으로 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꽃입니다, 그게.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하면 이 꽃이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그냥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런 겁니다.

안 좋은 꿈을 꾸었는데…

문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저의 어머니가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님이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와중에 집으로 가는데 큰 트럭이 달려오기에 피해서 인도로 올라갔는데 쭈욱 미끄러지면서 조카를 떨어뜨렸답니다. 너무 놀라서 잠을 깼는데 혹시 좋지 않은 징조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 꿈을 꾸고도 그렇고, 스스로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나는 것도 그렇고,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얼토당토않죠? 꿈은 얼토당토않게 꿨는데 얼토당토않게 좋게 생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규정이 돼서 대 놓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거기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이렇게 꿨대요. 아, 그냥 큰 거미줄에 얽힌 암흑 속에서 자기 아들이 둘둘 말려서 송두리째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암흑 속으로.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계신데 암흑이 어디 있고 밝음이 어디 있나. 아이구, 승진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들이 승진을 했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생각 그렇게 내 주는 게 나도 고맙고, 그쪽도 고맙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이성계처럼. 이성계가 다섯 가지의 꿈을 꿨는데 그걸 누가 못 쓰게 인도를 했다면 임금도 못되고 아무것도 못됐을 거예요. 무학 대사가 그만큼 홱 돌려서 얘길 해 줬기 때문에 임금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모든 거는 생각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쁜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싱긋이 웃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로써 우리는 항상 즐겁게 봄이 온 듯이 삽시다.

나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럴 뿐이지,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어떤 때는 뭘 하려다가도 세태로 보면 꼭 이게 될 거 같은데 마음에서는 그게 석연치 않아. 마음에서 석연치 않은 건 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깥으로 돌아볼 때 이익이 있을 만한 것 같아도 안에서 석연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에서 자신이 있을 때 탁 쥐어야 문제가 안 되지, 남들은 그냥 잘된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석연치 않거든. 그럴 때 잡으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사는 데 고초가 좀 덜어질까 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내 마음속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나 아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그렇게도 뼈저리게 깊은 사연들이 많아서, 눈물 속에 피가 섞여서, 여러분과 같이 흘리는 그 눈물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말로만 이런다면 벼락을 맞겠죠? 허허. 정말입니다! 간절히 여러분한테 말씀 한마디 해 드릴 때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알았소." "알았소." 이러고선 돌아설 때, 그 알았다고 하는 말 한 마디를 꼭 말로 '알았소'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중노릇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이 써서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쓰면서도 싱긋이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에 근심하지 마시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아마.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바람결같이 이 세상에 왔다가 바람결같이 가는 세상에.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짊어질 것도 아니니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가볍게 아주 탁탁 털어 놓으세요.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면 몸도 아주 무겁고 아프고 모든 절차가 전부, 인간이 살맛이 안 납니다. 탁탁 털어 놓으십시오. 주인공에 놓으라고 일러 드렸는데도, 맡겨 놓고 사시라고 간곡히 일러 드렸는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들 어떡합니까?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문 스님께서는 저희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요?

답 당신이지 누구예요? 일체 만 생명에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물질이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같이 공해서 이렇게 돈다니까요. 같이, 삼각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주 전체가. 그랬는데 내 주인공이 따로 있고 남의 주인공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려고 생각이 드는 것까지 놓으세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했다던데요, 그래서 옛날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불이라는 건 어떠한 걸 뜻하겠습니까? 우리네 생명 즉, 마음입니다. 마음과 더불어 그 마음으로써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지, 누가 심판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하나님이 즉 나, 나이면서도 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구리의 생명과 댁의 생명이 둘입니까, 하납니까? 둘이 아니죠?

일체 생명은 둘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은 작고 크고 할지언정 어떻게 생명이 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을 자꾸 붙여서 고를 만들지 마시고, 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걸 관하세요. 댁이 어디서 온 걸 알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어디서 온 걸 알 테니까요. 우주의 근원이 어떠한 것인가

☞22면으로 계속

그냥 싱긋이 웃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로 우리는 항상 즐겁게 봄이 온 듯이 삽시다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겁니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함입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2주 2월 15일 - 2월 21일 [717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15일[목]	서 산	-	당진읍	25km
2월16일[금]	당 진	-	삽교호	18km
2월17일[토]	삽 교	고성 화진포	금강산	300km
2월18일[일]	금강산 관광			30km
2월19일[월]	금강산	고 성	삽 교	300km
2월20일[화]	삽 교	-	안 중	24km
2월21일[수]	안 중	-	발 안	20km

제13주 2월 22일 - 2월 28일 [154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22일[목]	발 안	-	안산팔곡	25km
2월23일[금]	팔 곡	-	신 천	24km
2월24일[토]	신 천	-	월미도	20km
2월25일[일]	월미도	-	김포장기	24km
2월26일[월]	김 포	-	강화읍	21km
2월27일[화]	강화읍	-	외포리	19km
2월28일[수]	외포리	마니산참성대	함허동천	21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부처님이 계신데 암흑이 어디있고 밝음이 어디있나

☞21면에서 계속

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깐 그걸로 지팡이를 삼아서, 그 이름을 지팡이 삼아서 모든 것을, 사대오온이 다 공했으니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놔라 이겁니다. 자기가 주인이자 공이니까, 공에서 나온 거 공에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그리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의정 나는 게 있으면 안으로 굴리면서 관하라.'

그 생각, 모든 걸 전체 다 맡겨 놓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해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참나가 어딨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없이 생각 자체에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거나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영과 불성에 대해서

문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생에서 심은 습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도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업이란 무엇이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영(靈)과 불성(佛性)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 번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영(靈)이라는 것은 불성(佛性)하고는 다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모습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혼(魂)이라는 것도 영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혼(靈魂)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의 영혼일 것이고 크면 큰 대로의 영혼일 것입니다.

불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갖가지로 다르게 마음을 내는 것 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에 비유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하나가 만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죠. 영혼이 불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는 거를 이끌어 가는 그 자체가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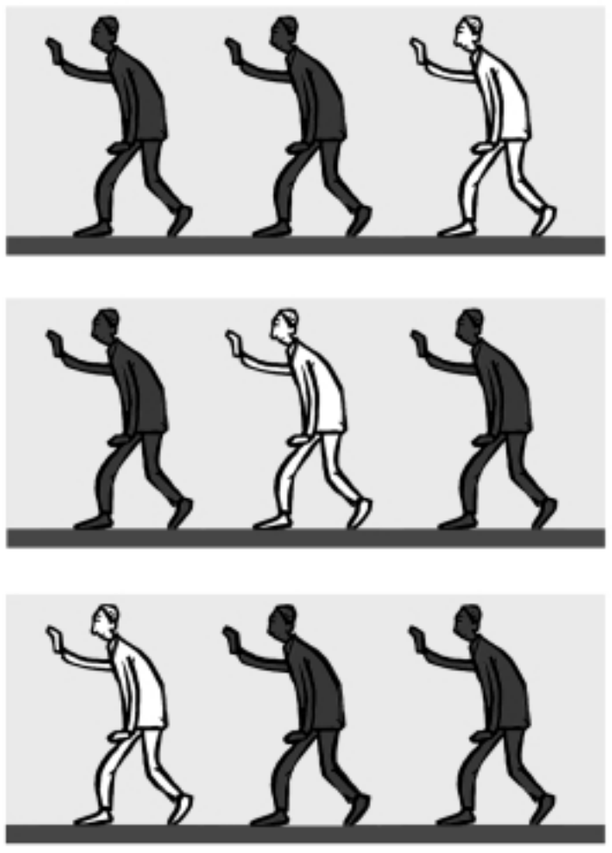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잘못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에 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불성에 이끌려서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돌아감이 없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한 찰나에 드셔서 묘법의 설법을 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에서 볼 때는 현실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다시 올 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볼 땐 여기가 과거고 여기서 볼 때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의 차원을 삼차원으로 볼 때, 영혼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자기 그릇대로 노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만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반면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가 지배인이라면 그 지배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악이 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배자가 될 양으로 그 정신세계에서도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참 좋은 아들을 달라고,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다 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빌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기르다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마저 죽어 버렸습니다.

그 엄마는 정말이지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염원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턱 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낳은 아들을 또 다시 가서 낳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성해서 이 세상에 모두 혼란이 와.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명을 받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벌써 죽어서 미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 미래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각(覺)을 이룬 사람이라, 생시에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미래의 세계로 전파를 보내고, 그러는 한편 미래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텐데, 이 악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꼭 죽여야만 옥황상제가 또 지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 여자를 택해서 배를 빌려야만 그 영혼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선에서 그거를 알고선 또 이쪽으로 구하러 보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뜻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 당신의 그 전자의 아들의 뜻을 바로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간파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또 이 누진(漏盡)으로서 결정을 내면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연방 그렇게 살피는 동시에 한 찰나에 과거와 미래를 드나드시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배를 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세계의 한자리의 도리, 아주 차원 높은 도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선의 주인공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 이 몸뚱이 혹성이 많이 죽게 되고 살기가 극난해지죠. 불안을 조성하고 방황을 조성하고 또 싸움을 조성하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어지러워서 지구도 그렇고 모두 소멸되는 그런 작전이죠. 악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거를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너부터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만이 네가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정신세계와 같이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 나가 없이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전부 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넣으면 새 쇠가 아주 다양하게 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도 선도 그렇게 다 넣으라 하신 반면에 그 중에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내서 저절로 독사 소굴에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게 자유 세상을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 있고, 부처도 이 자리에 있고 중생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없다.' 한 그 뜻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와 과거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자 실천이죠.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내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바람결같이 왔다 가는 세상에 무겁게 짊어지지 마세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한글법요집 출판기념회 및 제6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저자거리포교원을 표방하고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가꿔가고 있는 서울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안에 있는 열린선원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게 불자 스스로가 깨달음의 주체가 되어 공양, 천도, 예불, 독송 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율을 갖춘 한글법요집을 출판하여 불자들에게 공개하는 〈〈한글법요집〉〉출판기념회 및 부처님의 생애, 사찰의 예절 및 예불, 위빠사나부터 간화선까지의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제, 템플스테이(불자 5계 수계법회) 등을 배우는 제6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뜻있는 불자들께서는 기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행 사 명 : 한글법요집 출판기념회 및 제 6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
◆날 짜 : 2007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장 소 : 열린선원 대불전(큰법당)
◆행사내용 : 제 1부 - 〈〈한글법요집〉〉 출판기념회
제 2부 - 제 6기 열린불교아카데미 공개강좌
◇ 주제 : 왜 불교여야 하는가 (강의:법현스님)

※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한글법요집〉〉 1권씩 드립니다.
(다음 책 출판을 위해 자율보시 받습니다)

◆문의 : 02)386-4755,4720
www.opentemple.or.kr 다음카페 "열린선원"

한국불교태고종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천년의 물 해양심층수

한국에도 이제 해양심층수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오래전부터 해양심층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심층수 생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품들을 수입, 고가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 있으나 한국도 동해 권을 중심으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막 걸음마를 떼고 있다.

해양심층수라면 적어도 바다 아래 몇 백m 깊은 계곡을 흘러 다니는 물로, 우선 오염돼있지 않고 표층수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가가 많이 포함돼 있으며 표층수에 비해 온도가 아주 낮다.

태고 적부터 남북극의 빙하에서 녹아나온 차가운 물이 그 무게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갈아 앉아 바다 밑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것인데, 그 물길이 지구를 한바퀴 돌면서 표층으로 올라오는 세월은 몇 천 년에 이른다.

예부터 심층수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곳에는 신선한 먹이가 많아 고기들이 몰려 큰 어장을 이룰 수 있었던 곳이라 한다.

과히 천년의 물이라 할만 하며 생명의 물이라 할 만하다.

심층수는 사람이 마실 생수생산뿐 아니라 농수축산 분야, 건강 의료분야, 에너지 분야, 환경분야에도 두루 활용된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면 심층수를 끌어 올려 한대성 어류를 양식 할 수도 있고 여름 더위를 에어컨 대신 심층수를 끌어들여 식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고마운 자원을 그냥 반길 수만은 없다.

심층수를 반기는 이면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물의 위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는 '생명수'라 한다. 사람 몸 속 구성 성분 가운데 70% 이상이 물이라니 그 '생명수'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태고에 바닷물과 빛과의 교통이 생명 출현의 신비한 인연이라 하지 않는가. 그러니 물은 생명의 모성(母性)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상징성 풍부한 물은 이렇게 생명의 상징이면서 한편 종교적인 세계, 영성의 세계에서 죽음과 저승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새벽 우물에서 떠 온 정화수 한 그릇이 그 영성이며 불교의 관정(灌頂)의식, 기독교의 세례도 물의 영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의 상징성은 동서양이 또한 다르지 않다. 고대 동서양 어디서나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강이 등장했다. 고대 그리스 저승 수문장에 해당하는 뱃사공 카론이 죽은 자를 건너 주는 강은 스틱스 강이고, 동양권의 삼도천, 기독교에서의 요단강은 물론, 부처님이 깨달음의 피안으로 정해 놓은 곳도 차안과 물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뗏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물의 위기라 하면 바로 생명과 함께 영성의 위기가 된다.

강 호수 바다 등, 물이 고여 있는 곳 가운데 신비함을 간직하지 않은 곳 어디 있을까마는 특히 바다는 짐작키 어려운 그 넓이만으로도 신비롭다.

'너무 넓거나 큰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누군가 말했다는데, 그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종교의 영역일 것이며 바다는 종교적 신비를 간직한 그야말로 '해인(海印)'이 아닌가.

그 해인 속 깊숙이 천년을 흘러 온 심층수를 지구 오염의 마지막 대안으로 사람들이 지금 끌어 올리고 있다.

이를 어찌 반기기만 할 수 있겠는가.

불자의 눈

3월. 소생과 약동으로 상징되는 3월을 맞는 불교계도 분주하다. 각 종단이 올 한 해를 어느 해 보다 보람 있게 장식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난 두 달 사이 각 종단 수장들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 올 한해 종단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조계종은 '수행과 전법'을 대전제로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융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 하는 수행 종가 등의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20대 핵심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천태종도 수행풍토 확립과 환경 및 민족 화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천태종은 종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0주년(2011년) 기념사업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기념사업회 발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각문화전승관 착공과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등 굵직한 사업으로 한해를 연 진각종은 포교 교육 복지 문화장달 등 4대 종책 기조를 유지하며 종단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창종 정신의 재발견과 자주적 계승'을 올 한해 종단운영의 모토를 삼겠다는 진각종은 북한과 해외교류 사업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 종단의 주요 종책 기조 발표는 끝나고 실천만 남았다

2월 13일 불교전통문화전승관 삼존불 점안법회에 맞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태고종은 종단개혁과 덕화의 종무행정 구현을 종단 운영의 기조로 꼽았다. 3명의 부원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종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음종은 '교육불사'를 통한 종단 발전의 방향잡기를 공표했다. 4월에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을 개교하며 종단 차원의 교육불사 의지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다. 관음종의 교육불사는 승가의 교육과 재가 교육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주요종단들이 내놓은 올해의 종단 운영 지표는 크게 '내실 다지기'와 '대사회 활동의 강화'로 묶을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코드이기도 하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정치권과 민심이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절에 불교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불교계가 '큰 산'처럼 중심을 잡고 세상을 지킬 수 있어야 정치 경제적 혼란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종단 안쪽 살림만 챙겨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세속 살림살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여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 종단이 신년 벽두에 내 놓은 종책들이 성공으로 수확되려면 '내실다지기'와 '대사회활동의 강화'를 아우르는 종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화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각 종단의 내부적 노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이렇게 들었다 — 명절증후군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정해년 설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겠지요.

하지만 이른바 '명절증후군'이라 부르는 후유증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한 포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주부들에게 명절은 이제 육체와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명절 음식과 손님 치르기 등 끝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 때문입니다.

'명절증후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장시간 운전에 지친 남편이나 학업 · 취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 친척들과 여러모로 비교하다보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겠지요. 게다가 요즘은 시부모들까지 명절증후군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처럼 북적거리던 자식들이 차례를 지내자마자 우르르 떠나버린 빈집에서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고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물론 명절을 지내는 일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생각' 바꾸는 데서

따뜻한 격려와 마음의 배려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들에게 '당신 덕분에 명절이 즐거웠다'고 인사를 건네 보면 어떨까요?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아난무사불기흉경)"이니까요.

여수령(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 전통사찰 조경 '자연'에 맞게…



초본류 · 나무 외래종 지나치게 식생… '전통' 무색

사찰생태연구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 108개 주요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돌아보고 느낀 점은 사찰의 고유한 생태경관(生態景觀)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찰은 전통적으로 산중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절로 가는 길은 어디나 숲길이었다. 그 숲길은 번잡(煩雜)의 세계에서 명상의 세계를 이어주는 길이요,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 가는 길이다. 사찰의 숲길은 누구에게나 '거닐고 싶은 숲길'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사찰 숲길이 개발시대에 들어서면서 끊임없이 '속도와 기능'을 요구받아 눈에 띄게 파괴되고 있다. 부드럽게 굽이돌던 숲길은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자꾸만 직선화되고, 더 많은 자동차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숲길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길은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뒤덮혔다.

전통사찰은 주변의 생태계가 고유성을 지닐 때 비로소 참다운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의 사찰 주변 식생현황은 매우 부정적이다. 일제강점기 때 녹화사업용으로 들어온 귀화수종인 아카시나무, 리기다 소나무, 일본잎갈나무들은 어느 사찰림에서나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찰 경내에 조경된 나무들도 외래수종이나 원예종들이 우리 고유나무들을 밀어내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와 있다. 가이즈까 향나무, 중국단풍, 노무라단풍, 튜립나무, 칠엽수, 일본목련, 스트로브 잣나무, 일본 연산홍..... 이런 수종들은 조경업자들이 편의위주로 권한 것을 사찰측에서 무분별하게 가져다 심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은 전통적인 경관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 전통경관은 우리 고유의 식생일 때만 가능하다. 외래수종들이 자생수종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문화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본류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 당국이 사찰 진입로 주변 화단에 심어놓은 초본들도 거의가 외래 원예종 일색이다.

전각 주변의 크고 작은 화단에 심어놓은 초본들도 어림잡아 70~80%는 시중에서 파는 외래종이거나 원예종들 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영주의 'ㅂ'사의 화단은 모두가 외래원예종 일색이다. 법당의 불단이나 스님들의 방에도 예외 없이 외래 서양란 일색이다.

상업 대중적 가치에만 비중을 둔 조경도 문제가 심각하다. 고창의 'ㅅ'사와 영광의 'ㅂ'사 등 남도의 몇 군데 고찰에서는 지자체 당국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사화(꽃무릇) 천지로 만들어버렸다. 그 바람에 다른 야생화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이것은 자연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또다른 생태폭력이다. 관광개발도 좋지만, 그들이 생태적인 마인드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와 함부로 재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다. 담장 밖으로는 망초, 달맞이꽃, 미국자리공, 개자리, 돼지풀, 땅빈대 등 귀화식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귀화식물들의 특징은 지나친 불사 등으로 고유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만을 찾아든다.

귀화식물들은 고유한 자생식물들을 내쫓고 들과 산을 무섭게 점령해가고 있어서 생태계 교란과 훼손이 매우 염려스럽다.

이제는 전통과 수행에 맞는 조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해야할 때이다. 이를 위해 불교전문 수목원이나 불교전문 조경연구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조채희(사찰생태연구소 사무국장)

탈종공고

- 사찰명 : 왕복사
- 창건주 : 철안(정봉화)
- 소유권자 및 상속자 대표 : 정영도
- 주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08번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인 무효공고

- 사찰명 : 왕복사
- 창건주 : 철안(정봉화)
- 소유권자 및 상속자 대표 : 정영도
- 주 소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08번지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113번지

위 사찰의 주지직인 및
왕복사 직인은
2006년 9월 17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2월엔 복권을 사는 대신 삼성카드를 쓴다!



매일 황금돼지 20돈의 행운과 무이자할부 혜택이 쏟아집니다

행운1 황금돼지 20돈

- 대상: 행사기간 중 삼성카드 일시불, 할부, 금융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까이너스론)이용 고객
- 방법: 이용금액 2만원당 1번씩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윷놀이 즉석 게임에 참여
- 경품: 윷놀이 결과에 따라 매일 황금돼지 20돈(1명), 보너스포인트(2006명)의 행운이!

행운2 홍콩 무료여행 상품권



- 대상: 행사기간 중 해당 유통점(백화점/할인점/홈쇼핑/쇼핑몰 등)에서 삼성카드 5만원 이상 결제고객
- 경품: 추첨을 통해 홍콩 무료여행 상품권(10명)제공

행운3 무이자할부 혜택(2~3개월)

- 주요 유통점에서 무이자할부로 쇼핑부담을 줄이세요
- 무이자할부 가맹점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삼성플라자, 애경
  - ▸할인점 –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홈에버, 롯데마트
  - ▸홈쇼핑 – CJ, GS, 현대, 농수산, 우리홈쇼핑
  - ▸쇼핑몰 – 삼성몰, 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 ▸면세점 –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 행사기간 : 2007년 2월 1일 ~ 2월 28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를 참조하세요

www.samsungcard.co.kr 발급신청 및 문의 : 지역번호 없이 1588-8700

My Life, My Pride 삼성카드 SAMSUNG